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뉴스레터

English Teacher Shower 2024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http//hufsee.hufs.ac.kr)
발행인 이길영 | 편집인 English Teacher Shower 편집위원회 | 전화 02-2173-2342 | 이메일 hufsee@hufs.ac.kr | 통권20호 2024. 12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영 어 교 육 과

2024 English Teacher Shower

'Baby Shower'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 물품을 차분히 준비하며,
지인들이 모여 정답게 축하하는 모임이듯,
뉴스레터 'English Teacher Shower'는 이제 배출될
영어교사를 위한 소망의 커뮤티케이션 공간입니다. (표지사진 : 조은영(22), 차례사진 : 이길영 교수)

01 재무대외부총장 축사
02 사범대학 학장 축사
03 영어교육과 학과장 인사말
04 영어교육과 동문회 회장 축사
05 사범대학 학생회장 축사
06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인사말
07 Teacher Shower 발간 20주년 축하메세지
08 2024 영어교육과 파노라마
09 교수 동정
10 동문 동정
11 칼럼
12 동문 HUFSEEans 목소리
- 유신반대 시위로 제적의 시련,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던 열정의 대학 시절 - 김학모(74학번)
- 이문동의 길고 긴 인연 - 권용현(79학번)
- 진학지도는 우리 교사들 손으로… - 박권우(89학번)
- 가난했기에 어렵게 공부했던 영어, 이제는 나의 삶의 'Routine' - 김해창(91학번)
- 가고 싶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 이현정(95학번)
- 새롭게 뛰는 가슴으로! in Singapore! - 강순호(00학번)
- 생각지 못한 곳에서의 새로운 길 - 나세원(02학번)
- 1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 이영주(03학번)
- 2 춥고도 긴 Ames의 겨울을 버티며 잘 적응하고 있어요 - 나인영(11학번)
- 3 서울-자카르타-서울-에임즈, 나는 역마살 교사 - 김기중(08학번)
-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살아가기 위한 5년차 교사의 성장 스토리 - 김미래(16학번)

13 재학생 HUFSEEans 활동
- 1–1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듣기와 쓰기 중심의 영어 수업 혁신 - 최윤영(22학번), 황규빈(22학번), 최 원(22학번)
- 1–2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 - 문정현(21학번), 심현지 (22학번), 이승훈 (20학번)
- 포도농장 생태교육 '흙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햇빛을 가득 담은 생태 현장교육 참여 - 한시은(23학번)
- 들어보셨나요? 학기제 실습 - 김하은(20학번)
- 임용특강 길라잡이 - 양태규(20학번)
-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교인 *5-1* 영국 막연함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갖게 해준 교환학생으로서의 기회 - 공시은(22학번)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교인 *5-2* 스페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 - 박샛별(21학번)
- ROTC, 모두의 꿈을 위하여 - 김성수(21학번)

14 학생회 & 특별활동
- 학생회를 하면서 배운 것들 - 서우진(24학번)
- M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김건우(24학번)
- Come to HUFS, Join the 'Black Knights (미식축구부)!' - 도현우(23학번)
- 동아리 '라온'을 소개합니다! - 유은서(23학번)
- 불암산 정상에 서다 - 김 결(23학번), 박예준(23학번), 서우진(24학번), 신승원(24학번)
- 저의 취미를 소개합니다. 집착과 프리다이빙의 연관성 - 윤태현(23학번)

15 영어교육과 대학원 프로그램 및 교육대학원 소식
16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소개
17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동아리 소개
18 영어교육과 발전기금 안내
19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편집위원 : 김정민 (수석조교), 고혁범(18학번), 정원웅(20학번), 김결(23학번), 한시은(23학번) **지도 :** 이길영 (학과장,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02450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화: 02-2173-2342, 팩스: 02-2173-3359, 이메일 hufsee@hufs.ac.kr 홈페이지 http://hufsee.hufs.ac.kr

English
Teacher Shower
2015
2017
TEACHER
SHOWER
20TH
English
Teacher Shower
2018
English
Teacher Shower
2019
English
Teacher Shower
2020
English
Teacher Shower
2021
English
Teacher Shower
2022

참교육의 선봉, 영어교육과

TEACHER SHOWER 20TH

1992년~ 2019년 동문 사진

선봉
영어교육과
3月
13~19

영어교육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EE Shooting

2008 영교문화♡
바람해여

Teacher Shower 20년, 영어교육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소식지

김민정 재무대외부총장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끝자락에 스무 번째 Teacher Shower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Teacher Shower 2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외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 노력에 매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예비교사 역량 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수한 학과입니다. 특히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우수 현장교사와 함께하는 교수계발 워크숍'은 교수 현장과 대학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우수교육기관을 탐방하는 프로젝트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외국에서 영어와 한국어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언어교육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호를 맞이한 Teacher Shower는 국내 영어교육과 가운데 아니 어쩌면 모든 국내 학과 가운데 꾸준히 발간하는 유일의 소식지로,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영어교육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는 의미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와 교사를 꿈꾸는 학생은 물론 대학과 교수 현장의 연결을 통한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간 발간된 Teacher Shower를 통해 영어교육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외대에서 양성한 창의적이고 유능한 교사가 현장에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현장의 얘기를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년 동안 끊임없이 Teacher Shower가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동문 여러분, 교수님과 학생,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Teacher Shower 그 여정을 함께하며, 그 과정의 소중한 기록

윤현숙 사범대학 학장

안녕하세요! Teacher Shower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eacher Shower는 지난 20년간 영어교육과의 성과와 발전을 알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열정이 담긴 다양한 활동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창구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중등학교와 교육 현장에 영어교육과의 비전을 알리고,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귀한 자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흔히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 영어교육과는 그 이상의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20년 동안 학과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며, 혁신적인 교육 방안을 도입해 미래를 대비하는 교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Teacher Shower는 영어교육과의 발자취를 기록하며, 작은 성과부터 큰 변화에 이르기까지 매년의 도전을 담아내었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Teacher Shower는 그 자체로 영어교육과의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의 20년 또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영어교육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며, 교육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Teacher Shower는 그 여정을 함께하며, 그 과정의 소중한 기록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Teacher Shower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이 발간물이 영어교육과와 사범대학, 교육 현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어교육의 메카인 한국외대, 그 가운데 빛나는 영어교육 정진의 산물 – Teacher Shower

이길영 영어교육과 학과장

사실 이렇게 20년 동안 Teacher Shower가 꾸준히 이어질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외국어교육의 본산이라고 하는 한국외대에서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인 우리 영어교육과가 Teacher Shower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2005년입니다. 당시 함께 힘을 합해 주신 교수님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마 2-3년 하다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Teacher Shower를 처음으로 출간한 그때는 우리 영어교육과가 독수리의 눈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TESOL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에게 소개되고, 단지 영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과학이요, 예술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또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언어이론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국어 교수와 학습은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정서적 반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는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중등교육에서 선진화된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수진으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전국의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전국영어교사수업경연대회를 개최한 국내 유일의 학과였으며, 2000년대 초반 국내 최초로 정규과목에 멀티미디어영어교육에 이어 현재 빅데이터 및 AI 영어교육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경연대회 개최와 또 현장교사와 밀착된 교수법 계발 워크숍 및 해외프로젝트, 우수한 현장 영어교사 초청 특강 시리즈, 또 국내 처음으로 정규과목으로 도입한 멘토링 등등의 활동을 통해 유능한 영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훌륭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우리 자랑스런 학생들, 그리고 이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Teacher Shower가 이러한 한국외대 영어교육과의 꾸준한 활동을 매년 학생과 동문 그리고 교육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단일 학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매거진을 발간하는 학과는 국내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코 흔치 아니한 위업입니다. 20년 동안 발간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애를 써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학교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Teacher Shower 2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Teacher Shower

김해창 영어교육과 동문회장

20년 전, Teacher Shower가 시작될 때 많은 이들은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발걸음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룬 모든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그 자체가 오늘날 세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글로벌 사회에서의 자신감을 키워왔습니다. 영어교육은 단순히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세상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Teacher Shower, 그 역할 또한 특별합니다. Teacher Shower는 단순히 학교나 기관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를 넘어서, 학문적 성취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교류되는 장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Teacher Shower는 동문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왔으며, 많은 이들에게 지식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함께한 교수님, 편집자, 영교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순간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Teacher Shower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교육과 학문도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며, 미래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Teacher Shower 발행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모든 성과에 감사하며, 앞으로 30년, 40년 계속해서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문들이 이 여정을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영어교육과의 새로운 역사, 이정표 제작에 참여한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학년도에 Teacher Shower 16호를 읽어본 기억이 또렷합니다

한종우 사범대학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제 40대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 한종우입니다. 사범대 학생회장으로서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선배님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입학한 년도에 Teacher Shower 16호를 읽어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었고, Teacher Shower는 기념비적인 20호를 맞이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Teacher Shower가 계속되어 20주년을 맞이함을 축하합니다. 영어교육과의 변화와 발전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영어교육과의 많은 정보와 다채로운 소식들을 확인하며 향후 영어교육과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 지향점을 바라봄에 있어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2학기, 더 나아가 2024년이 두 달 후에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정 수준 적응을 마쳐 여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 사범대 학생회장으로서 어느덧 제 임기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 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영어교육과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제라도 지적하고 피드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하여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고 즐겁게 2024년을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려낸 영어교육과의 새로운 모습

황민정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제40대 영어교육과 SO-ONE 학생회 회장 황민정입니다. 2023년, 1학년 새내기 때 설레는 마음으로 Teacher Shower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영어교육과의 학생회장으로 20주년 Teacher Shower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4년이 되어, 영어교육과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진행된 "새내기 미리 배움터"와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학생회 활동 중에서도 오래 기억에 남을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처음 준비한 큰 행사인 만큼 준비과정에 어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학생회 국장들과 함께 준비한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어교육과 신입생들을 비롯한 재학생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으로 영어교육과가 사범대학 새내기 새로 배움터, 과 대항전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어교육과 신입생들의 찬란한 시작을 응원할 수 있어 뜻깊었고, SO-ONE의 마음과 노력이 모두에게 닿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개강과 함께 우리들의 모습은 더욱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영어교육과 학우들의 즐겁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해 매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매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 영어교육과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기록할 수 있었기에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SO-ONE 학생회에 들어와 함께 수고하며 믿고 따라와 준 구성원 모두에게 정말 고맙고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두 달 남짓한 시점에서 남은 행사들을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영어교육과 학우들과 함께 그려나가고 싶은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올해의 끝이 아쉽기도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SO-ONE이 그려나갈 모습들과 앞으로의 영어교육과의 모습은 계속해서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내며 행복한 기억들이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Teacher Shower 발간 20주년 축하메세지

동문 축하 글

75학번 정은희, 김지희, 이유순, 박경임

2024년 Teacher Shower가 발간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니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 (정은희)가 외대 캠퍼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1975-1979년에는 단지 〈외대인(外大人)〉이라는 통합적 교지가 전부였는데 이렇게 Teacher Shower라는 영어교육과의 독자적 뉴스레터가 발간되어 어느덧 20주년 기념호가 된다니 매우 뿌듯하고 감동적입니다.

제가 2023년에 이길영 학과장님으로부터 19호 Teacher Shower라는 뉴스레터를 처음 받아 보았을 때 이 Shower라는 단어에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과장님께서 19호에서 Teacher Shower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셨던 것처럼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여성을 위한 파티로 친지들이 각자 가져온 선물을 쌓아 놓고 케이크와 스낵, 음료 등을 곁들이면서 주인공 여성을 미리 축하해 주는 Wedding shower 또는 Baby shower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풍습에 착안하셔서 이 뉴스레터의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다고 생각합니다.

Teacher Shower라는 이름처럼 현직교사인 졸업생들이 교사를 꿈꾸고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인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리 축하해주는 파티와 같은 소통 공간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의 저출산 추세로 영어교사 모집인원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여 우리의 예비교사 재학생들에겐 depressing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 Teacher Shower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동기유발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처럼 굳건한 의지를 갖고 영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절대 놓아버리지 않고 실력배양에 힘쓰면 분명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영어는 생명선이고 힘이요 무기입니다.

75학번 동문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은희, 김지희, 이유순, 박경임)

Teacher Shower의 발간 20주년을 축하 드리며 우리의 영어교육과가 창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2학번 홍현주

예비교사들을 위하여 교사가 되는 꿈과 자부심을 알려 주는 Teacher Shower. 그 역할을 20년 해오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87학번 김서정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영교과의 자부심을 Teacher Shower를 통해 느낄수 있었어요. 소중한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20년간 꾸준히 해온 노고에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20호 출간 축하합니다!

99학번 이준일

Teacher Shower가 20호를 맞이하게 되어 참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영교과의 모든 교수님들과 동문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5학번 남수호

제가 입학했을 때 Teacher Shower 1호가 발간되었네요. 이제 20호 정도면 외대 영교과의 전통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그간 노고를 기울여주신 교수님들과 편집진, 기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호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09학번 문수영

티쳐샤워 20주년! 교수님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14학번 김민선

Teacher Shower 20호를 축하합니다! 이곳에 실린 선배님들의 교환 학생 이야기, 교생 실습 이야기, 초임 교사 이야기를 보며 꿈을 키웠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앞으로도 Teacher Shower가 누군가의 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Teacher Shower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축하 글

윤현숙 교수님

스무 살이 된 Teacher Shower,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응원합니다!

김해동 교수님

Teacher Shower에 매년 교수 동정을 써 온 것이 엊그제 같은 데 창간 후 벌써 20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우리 대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록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이를 기획하고 꾸준하게 만들어오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전통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며 소식이라는 선물을 한 보따리 담고 우리에게 시원하게 shower를 뿌려주시는 역할을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김현정 교수님

영어교육과 뉴스레터 English Teacher Shower의 2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뉴스레터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영어교육과의 명예교수님과 교수님, 조교, 그리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뉴스레터를 통해 영어교육과의 다양한 성과와 재학생 및 동문의 동정을 공유하며, 외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영어교육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준규 교수님

한국외대 영어교육과의 소중한 전통인 Teacher Shower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Teacher Shower는 영어교육의 지식과 열정을 공유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영어교육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호 창간 축하메세지

이 윤 교수님

첫 호를 띄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작은 지면에 몇 줄 밖에 안되는 소식이지만 이를 받아든 선배들은 이문동 시절과 후배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작은 소식지는 학교 현장에서, 또 여러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영교인들에게 후배들이 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이문동의 현재는 선배들이 살았던 흔적이자, 선배들이 남겨놓은 전통을 우리가 본받아 살고 있는 것'이라고, '곧 우리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현장으로 나가 영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고, 그런 외침을 선배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소식지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학교 현장에서 값진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누어주는 선배들의 사랑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작은 소식지, Teacher Shower입니다. 지난 20년, 이 작은 소식지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영교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점점이 연결된 각자가 영교인의 자긍심을 갖고 더 큰 꿈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임현우 교수님

Teacher Shower 발간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Teacher Shower는 학과의 발전과 성장을 기록하며 구성원들의 학문적 열정과 헌신을 입증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과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더 많은 성과와 이야기를 담아낼 거라 기대합니다.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Andrew Prosser 교수님

May I take this opportunity of congratulating the department on the 20th year of the publication of the Teacher Shower. It has long included a lot of valuable information, tips, encourage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for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이길영 교수님

20년 동안 꾸준히 펴내기까지 애써 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원고료가 없음에도 글을 써 주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큰 도움을 주신 기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학생회 축하 글

학생회장 황민정 (23)

Teacher Shower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영어교육과에 많은 추억들이 발생했고 기록되었습니다. Teacher Shower를 통해 매년 영어교육과의 모습을 그려내며 한 해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의미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의 세계가 외대로 들어와 우리 영어교육과에서 밝은 미래의 모습을 찬란하게 그려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회연대국장 최예나 (23)

사회연대국에서는 '짝선짝후'나 '스터디메이트' 같은 행사를 통해 영어교육과 선후배와 동기들 간의 친목을 쌓고 교류를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Teacher Shower가 2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순간에 제가 글을 남길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가 많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기획국장 장 민 (23)

1년 전 새내기 때, 처음 Teacher Shower를 읽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음을 실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또한 새로운 출발을 앞둔 분들께, 티쳐샤워가 기분 좋은 설렘을 안겨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는 과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학우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힘쓸 수 있어 뿌듯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움을 위해 한 데 모인 사람들이지만, 다양한 행사를 통해 다함께 웃으며 단순 학우 관계 이상의 유대감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도 영어교육과가 늘 행복한 웃음과 함께 더 밝게 빛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여지원 (23)

학우분들의 즐겁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Teacher Shower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처음 한국외대에 합격했을 때 Teacher Shower를 읽으며 큰 설렘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도 Teacher Shower가 영어교육과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꿈꾸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어교육과 파노라마

사진 : 이길영 교수

싱가폴 프로젝트 – '현장교사와 함께 하는 예비교사 현장 역량 계발 워크숍' 우수 수료자

2023년 가을학기에 사범대는 영어교육과 주관으로 '현장교사와 함께 하는 예비교사 현장 역량 계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그 워크숍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이 지난 2024년 2월에 4일 여정으로 싱가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녀왔다.

해외 프로젝트는 국내 사범대학 중 유일하게 우리 대학에만 있는 것으로 교사적 열망을 가지고 워크숍을 성실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는 두 개조로 나누어 싱가폴국립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IE, 싱가폴 유일의 교원양성기관), Nanyang Polytechnic (난양폴리테크닉)에서 강의를 듣고 싱가폴의 영어교육과 현황과 더불어 한국어교육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각 학교의 선진화된 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다.

입상한 이들은 김하은(20), 이채령(20), 문정현(21), 이승훈(20), 황규빈(22), 윤주원(22), 임현화((22), 김수민(중교21), 유예진(독교20), 서성은(독교17)이다.

임용고사 특강 & 인텐시브 특강 –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한 땀방울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임용시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특강은 영어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용시험 개요, 영어교육론, 영문학,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음운론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9월 28일과 10월 5일에도 임용시험 인센티브 특강이 진행되었다. 영어임용고시 모의고사 전에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강으로,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교육론과 영어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단기간에 배울 수 있었다.

두 특강을 통해 올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 추후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임용고사의 전반적인 정보를 얻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요 일	시 간	내 용	장 소
7/15(월)	9시~13시	영어교육	교수학습개발원 204호
	14시~16시	임용시험 개요	
7/16(화)	9시~13시	영어교육	온라인 (ZOOM)
7/18(목)	10시~17시	영문학	교수학습개발원 204호
7/20(토)	9시~13시	영어교육	온라인 (ZOOM)
7/23(화)	13시~17시	영어학 (동사론, 의미론, 화용론)	교수학습개발원 204호
7/24(수)	13시~17시		
7/30(화)	10시~17시	영어학 (음운론)	교수학습개발원 204호
7/31(화)	10시~1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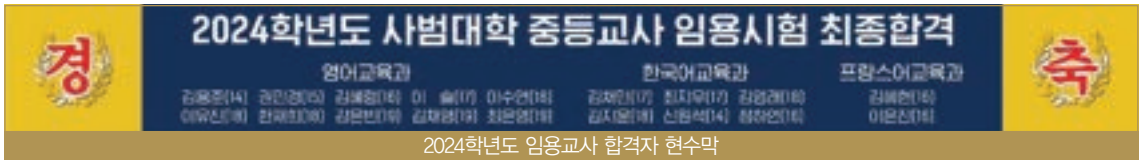
직접 교단에 서 보는 값진 경험 – 교육실습 거행

2024년 1학기, 4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이루어졌다. 흔히 '교생실습'이라고 불리는 교육실습은 사범대생 혹은 교직 이수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약 한 달간 교직 생활을 체험해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교육실습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여러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 교단에 서 보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대화와 조언을 통해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제40대 영어교육과 학생회 SO-ONE에서는 교육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실습을 응원해 주었다. 이처럼 학우들의 많은 응원과 지원 덕분에 4학년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교육실습을 마칠 수 있었다.

2024학년도 임용고시 – 다수 합격의 쾌거!

2024학년도 임용고시에 영어교육과에서 10명이 합격하여 교사로 임용되었다. 학격자는 다음과 같다 : 김용준(14), 권민경(15), 김혜령(16), 이슬(17), 이수연(18), 이유진(18), 한재희(18), 강은빈(19), 김채영(19), 최은영(19). 학과에서는 교정에 현수막도 공지하여 학내에 다음과 같이 알리기도 하였다.



2024학년도 임용교사 합격자 현수막

학과에서는 이번 임용고사에 합격한 이들에게 임용된 학교 교무실로 축하 꽃바구니를 보냈으며 수험생을 뒷바라지 하신 부모님께도 감사의 꽃다발을 보내 드렸다. 교무실에서 꽃바구니를 받은 신임 동문교사들은 옆에서 근무하는 선배교사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받았다면서 뿌듯했다고 전해왔으며 꽃다발을 받으신 부모님들도 감사함의 마음을 학과에 보내왔다.

이번 임용고시에서 아까운 점수차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다음 기회에 반드시 좋은 점수로 이 문턱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동계/하계 졸업식 – 축하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사진), 그리고 2024년 8월 16일. 각각 동계/하계 졸업식이 열렸다. 영어교육과는 2월에 20명, 8월에 8명으로 모두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정은 졸업자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오랫만에 가득찼고 따스한 응원과 격려의 말로 졸업생을 축하하였다. 이제 대학 4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교정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졸업생들에게 하늘의 도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임용고사 합격자 간담회 – 값진 노하우를 전해 준 신임 동문교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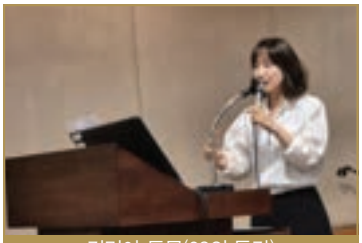
영어교육과 졸업생으로 공립 중등교원에 2024학년도 신규 임용된 합격자 동문들의 간담회가 2024년 4월 8일에 열렸다. 임용시험에 관심 있는 많은 학우가 참석하였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간담회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혜령 동문 (16, 경인중), 이수연 동문 (18, 동탄 국제고), 이유진 동문(18, 이천 마장중)이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임용시험 준비에 대한 여러가지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주었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

교수학생간담회 – 소통의 시작

2024년 3월 25일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교수학생 간담회가 열렸다. 1학년의 경우 학과 교수님들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마주하며 인사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자리이다. 또 재학생에겐 평소 궁금한 사항들을 교수님들께 직접 묻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 참석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동문선배 간담회 성료 – 이현정 (95), 김민아(02), 강다흔(10)

강다흔 동문(10) 특강



김민아 동문(02의 특강)

이현정 동문(95)

2024년 3월과 5월,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3월 18일에는 미국 공인회계사로 활약 중인 강다흔 동문 (10)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와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였다. 5월 13일에는 서울국제고 교사로 재직 중인 김민아 동문(02)이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며 후배들의 꿈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 12월 4일엔 독일 대학의 교수이자 변호사인 이현정 동문 (95)이 변호사로서 또 교수로서 성장하기까지의 인생담을 진솔하게 후배들에게 알려주었다.

예비영어교사수업경연대회 – 교육전문가로 나아가는 과정

지난 6월 5일, 열한번째 예비영어교사수업경연대회가 있었다. 참가 학생들의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었는데, 모두 놀라운 실력에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순위를 정함이 어려웠다는 심사위원의 소감이 있을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 열심을 가지고 연습하는 예비교사들의 유능한 교육전문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선배들이 시연할 때 1학년 학생들이 순번을 짜서 학생역할을 해 주어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함도 이색적이었다. 최우수상을 최 원(22), 최윤영(22), 황규빈(22) 조가, 그리고 우수상을 문정현(21), 심현지(22), 이승훈(20) 조가 수상하였다.

우수현장교사 특강 시리즈 거행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지난 20년 간 꾸준히 매년 마다 진행되어 온 우수현장교사 특강시리즈가 올해에도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현장교사특강의 강사진 5명은 각각 다른 주제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현장에 몸담고 있고,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소중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학생들은 현장 교사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현장과의 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이번 2024년에 특강시리즈에서 강의한 현장 우수 교사들이다. **김진원 (이우학교 교감), 김미래, (서울 장평중 교사), 박영규 (경기 동화고 교무부장), 손지선 (서울 양서중 교사), 김민정 (서울 하나고 교사)**

2024 이응호 교수 장학금 시상식

2024 이응호교수 장학금 수여가 지난 10월 24일 있었으며 2024학번 박유경, 류재후, 이기찬 학생이 수여 받았다. 이응호교수 장학금은 홍현주 동문(82)이 700만원씩 5년간 출연한 총 3,500만원으로 은사이신 이응호교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시작된 것으로 출연자의 뜻에 따라 1학년 학생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다.

멘토링 – 학교 밖 청소년을 돕는 소중한 기회

지난 20년 동안 정규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멘토링이 올해에도 거행되었다. 매년 2학기에 2-3학년 학생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협력기관은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도와 학습 및 생활지도를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멘토로서 참가한 학생들이 장차 현장의 중등교사로 나아가 마주할 청소년들의 일면을 보며 섬길 수 있는 사명감 함양과 또 지도방법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멘티들에게는 학습에 도움을 받아 그들이 소망하는 검정고시 등에 좋은 성적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소임을 다하는 센터장님과 스태프의 헌신을 통해 이들의 열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현장교사와 함께 하는 예비교사 AIDT 현장역량 계발 워크숍 실시

예비교사들인 학생들과 현장 교사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멘토링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AIDT 활용 실제적 현장수업 적응을 위한 워크숍을 거행하였다. AIDT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교과서를 의미하는데 영어과목의 경우 2025년 내년부터 중등교육 현장에 실시예정이기에 학생들에게 현장적응성이 필요되었으며 이에 현장교사를 초청하여 밀착된 멘토링을 통해 시행하게 되었다. 11월 12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약 한 달간의 일정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현장교사의 AIDT 활용 사례 나눔을 통해 실제적 현장 적용 구현 방법을 구상하였으며, AIDT 활용 수업 설계 및 현장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수업안을 작성하였다.

홈커밍데이 – 동문 선배와 재학생이 함께 하이파이브

지난 11월 29일 6시에 2024 홈커밍데이가 본관 13층에서 열렸다. 배움의 이문 터전을 떠나 사회에서 활동 중인 선배와 재학생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이다. 실제 72학번 김동혁 동문으로부터 2024학번 1학년에 이르기까지 54년의 갭이 있었으나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지는 공간으로 홈커밍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요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73세이신 할아버지의 연배인 대선배도 흥분이 된 듯, 직접 후배들에게 기(氣)를 공급하기를 요청하자 기꺼이 모두 기립하여 '氣 받으세요!' 손을 뻗어 퍼포먼스를 하는 화기애애한 시간도 있었다.

식사 후 학생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고 퀴즈와 게임을 통해 선후배가 함께 웃고 격의없이 하이파이브하는 시간이 되었다. 경품시간에 김해창 동문회장이 준비한 김포 쌀이 등장하니 모두 놀랐고 추수감사절의 풍성함도 느껴졌으며 거의 참여자 모든 이들이 경품을 받았고 동문회장이 동문들이 기부한 50만원도 학생회에 전달하였다.

참여한 동문은 **72 김동혁, 77 이성돈, 80 박흥률, 80 황현지, 80 이종화, 83 이윤주, 91 김해창, 95 박찬규, 97 민창윤**이다.

2024 영어교육과
HOME COMING DAY
일시: 2024/11/29(금) 18시 | 장소: 외대 본관 13층 스카이라운지

20년동안 한국외대 영어교육과에서 봉직하시며 많은 공헌을 하신 이충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충현 (영어교육학 박사)

최종학력 : Media Technology for TEFL,
Newcastle University, England

교내주요경력 : 2006. 02 ~ 2008. 01 외국어교육연구소 소장
2008. 02 ~ 2010. 01 사범대학 부학장

교외주요경력 : 2008. 01 ~ 2009. 11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편집위원장
2010. 01 ~ 2011. 12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회장

수상 : 1990. 09 British Council Scholarships
1992. 09 British Council Scholarships

연구업적 :

① Pre-Service English Teachers' Voices on Using Smartphones in Classrooms,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7(4), 1-24. DOI: http://dx.doi.org/10.16933/sfle.2023.37.4.1 외 72편

②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021, 2nd ed.). Bookorea. (paperback) & (ebook) 외 56편

③ Mobile-Assisted Blended Learning (MABL) in English Listening Skills at University Level, 2022 ALAK International Conference & AILA East-Asia Forum. 외 63편

④ 경기영어마을 실태 및 성과분석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2010.01.29., 경기도(교육협력과). 외 15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전공의 국내 최초 박사학위자로 지난 20년간 학과 발전위해 큰 공헌

지난 20년 동안 우리 영어교육과에서 봉직하였던 이충현 교수님이 영예의 정년퇴임을 지난 8월 31일에 하였습니다.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에서 디지털 테크놀러지 및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은 해당 분야로는 국내 최초의 박사학위자이며, 2004년에 본교 영어교육과에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학과에 부임한 첫해부터 국내 타 대학에 비해 제일 먼저 '멀티미디어영어교육' 과목을 개설하는데 주도하였고,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영어교육을 지난 20년간 가르쳐 학과의 선진화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등교사로 양성되는 학생들에게 21세기에 적합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교수님은 평소 열정적인 연구력과 행정력으로 큰 공헌을 하였고, 행정과 연구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논문, 저서, 발표 논문 및 연구 보고서 등 200여편을 게재 · 집필하여 전공 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펼쳐오신 교수님을 떠나 보내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AI로 대변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혁신적인 분위기가 교육현장에 무르익는 이 시대에 교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더욱 필요로 되는 즈음이어 더욱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애 써 주신 공적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며, 이제 정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인생의 챕터를 열면서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정년퇴임을 하시지만 한국외대의 명예교수로서 학교와 영어교육과의 발전을 위해 여전히 기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교수님, 지난 20년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9일 1학기를 마치고 함께 교외에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일과 2학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학기 중에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그 때 그 때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 모두 만나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기가 쉽지 않기에, 함께 하는 이 시간 서로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윤현숙 교수

윤현숙 교수

올해 1학기부터 사범대학 학장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 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연구 관심 분야인 코퍼스를 이용한 영어교육과 제2언어 어휘 습득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충현 교수

이충현 교수

지난 30여년간 교직에 몸담고 금년 8월 31일자로 정년 퇴임하였다. 교수직을 마무리 하면서 6월에는 국제 저명학술지에 디지털 테크 활용과 자율학습 및 영어 듣기능력 성취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해동 교수

김해동 교수

2024년 초반기에 ‘영어 교재 개발을 위한 ChatGPT의 활용 인식 분석’과 ‘ESP 교재 평가 기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분석’을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8월부터 우리 대학 TESOL전문교육원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영어교육학회 전임 회장으로 자문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정 교수

김현정 교수

현재 TESOL대학원 선임주임교수 및 교육혁신원장을 맡고 있다. 교내 영어 및 외국어 마이크로전공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

이준규 교수

이준규 교수

이준규 교수는 현재 영상영어교육학회 회장이며, 연구재단 등재지 〈외국어교육연구〉와 〈STEM Journal〉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제2언어습득 관련 연구들을 게재하였다.

이 윤 교수

이 윤 교수

현재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자문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공 분야인 초등영어교육, Literacy 분야 연구를 하고 있다.

임현우 교수

임현우 교수

현재 교육대학원 부원장과 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제2언어 글쓰기 교수법, 담화분석, 다중모드 글쓰기 등으로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영어교육 분야의 테크놀로지 기반 글쓰기 교육, 다중모드 스토리텔링,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해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길영 교수

이길영 교수

올해부터 영어교육과 학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 기존 저서의 증보판으로 '감칠맛 나는 맥락영어'를 출간했으며, 11월 15일부터 태국 치앙라이에서 있었던 2024 AsiaTEFL 국제학술대회에 전임 회장으로서 다녀왔다.

Andrew Prosser 교수

Andrew Prosser 교수

My recent research has been related to visual literacy in language teaching and presentation. In one area, I've been looking at 3D design, and presented at the KOTESOL conference on the use of a three-dimensional model in presenting prepositions of movement and position, which, at an advanced level, are quite complex and potentially problematic to explain verbally or through text alone. I've also written a paper on conventions in graphic storytelling and visual narrative, and how these might be used in the interests of presenting narrative tenses. In terms of multimedia, I recently presented at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conference on issues in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interactive multimedia for the purposes of teacher training.

1 **하현주 동문 (83, 책아책아 대표)**이 2024 PX3 (Prix de la Photographie Paris :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사진 공모전)에서 AI부분 금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2 서울 장평중 교사인 **김미래 동문 (16)**이 서울대 대학원 AI융합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이번 8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초청으로 'AI . 디지털시대의 영어교육 메이크오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Fulbright 영어교사 미국장학프로그램(ASP)에 선정되어 2025년 1월 한달간 미국현지에서 연수받게 됩니다.

3 내일신문 기자출신인 **전예현 동문 (93, 우석대 객원교수)**이 더불어민주연합 선임대변인에 임명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4 **김미향 동문 (97, 동탄 서연고 교사)**이 사범대 초청으로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에 대하여 특강을 했습니다.

5 **정혜린 동문 (14, 성덕고 교사)**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6 외교부 공무원인 **안은주 동문 (87)**이 탄자니아 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안 동문은 1996년 제 30회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부했고 이후 조약과장, 주 유네스코 공사참사관, 외교부 언론담당관을 거쳐 최근까지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7 **김민아 동문 (02, 서울국제고 교사)**이 영어교육과 초청으로 졸업생 선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 총신대 산업교육학부 교수인 **이하원 동문 (93)**이 부교수로 승진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9 **남수호 동문 (05, 대전외고 교사)**이 충남대에서 AI융합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편 2024년 중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대전 영어과 부문에서 1등급 수여 받았습니다. 연구주제는 'DAP이 있는 BeT-win 영어수업으로 DEEP 역량기르기' 입니다. 축하합니다.

10 96학번 **김진원 동문**(이우학교 교감)이 사범대 초청으로 '강점과 교사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김 동문은 재학시절 학생회장 출신이며 사대 동아리 '한솥밥'에서 활동했습니다.

11 사범대 초청으로 **박영규 동문 (99, 동화고 교무부장)**이 '중등교사 사용설명서'의 제목으로 11월 20일에, **김민정 동문 (06, 하나고 교사)**이 '교육의 색깔: 학교 생태계 속 나의 흔적 남기기'라는 제목으로 12월 2일에 특강을 했습니다

12 **이현정 동문 (95,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교수/ 변호사)**이 영어교육과에 초청되어 '독일식 교육과 도전, 성장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졸업 선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3 **신지영 (95,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교수)** 동문이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담화인지언어학회-한국기호학회-한국영어학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차 모교에 방문하였습니다.

14 **강다흔 (10, 미국 공인회계사)** 동문이 영어교육과 초청으로 졸업생 선배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비유로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15 14학번 동문의 결혼 소식입니다. **정혜린(성덕고 교사), 신효은(배화여중 교사)** 축하합니다.

인공지능교과서(AIDT)를 통한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육의 혁신과 도전과제

김낙훈 (02, 성동고 교사, 영어교육학 박사)

중등영어교실 수업의 새로운 혁명 – 인공지능교과서 도입의 의미를 찾아서

1. 들어가며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인프라와 개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 혁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AIDT는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하여 교사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공교육의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혁신 요소로 평가된다. 이는 디지털 교육 환경의 구축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AIDT의 교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학습자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곧 현장에 도입될 AIDT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고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AIDT가 중등 영어 교수학습 과정에 가지고 올 혁신에 대해 조망하고, 이에 따른 도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2. 영어과 인공지능 교과서 기능 일람

2024년 현재, 인공지능 교과서(AIDT)는 검증 절차가 진행 중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AIDT 프로토타입이 일부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으나, 현재 기능 개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AIDT의 실제적인 모습을 충분히 조

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3년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을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될 중등 영어과 AIDT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영어과를 포함한 공통적인 AIDT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IDT는 학습자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습 맵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AI 기반 학습 진단으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개별화된 콘텐츠와 학습 경로를 추천한다. 또한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습 진행 상황과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학습 이력과 성취도를 기록 및 분석하여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율적으로 학습을 점검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AIDT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정성을 위한 엄격한 데이터 관리와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다. AIDT는 학습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형태로 운영되며, 국가 기준에 맞춰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 외에 영어과에서 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DT는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공통 수업 자료 외에도 개별 교사가 학습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학습지 형태로 제공되는 추가 수업 자료를 보다 유연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영어과에서는 AI 튜터 및 보조교사 기능을 활용하여 번역기 기능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영어 말하기 수업의 경우 음성인식(ASR)과 컴퓨터보조발음시험(CAPT) 기능을 활용하여 AI 튜터가 학습자의 발화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자유도가 높지는 않겠으나, 교육과정의 수준과 선행학습 금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오히려 자유도가 적절히 통제된 형태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3. AIDT가 주도하는 영어 수업 혁신 모형

이러한 AIDT의 기능을 바탕으로, 2025년 3월에 AIDT가 중학교 영어 수업에 이상적으로 도입된 장면을 상상해 보자: A 중학교 1학년 4반의 영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영어 교사 K씨는 칠판에 오늘의 수업목표를 제시하고 오늘의 수업 목표인 "모둠별로 환경보호 포스터 작성하여 발표하기"를 위한 동기 부여 활동을 전개한다. 이 활동이 끝난 후, K씨는 학생들로 하여금 AIDT에 접속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AIDT에 접속하면, AIDT는 각자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개별화된 학습 콘텐츠와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유나와 민수는 같은 영어 수업을 듣지만, 유나는 발음 연습이 더 필요한 반면, 민수는 어휘력이 부족하다. AIDT는 이를 감지하고 유나에게는 발음 교정 자료를, 민수에게는 어휘 확장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이 과정에서 교사

도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들의 사전 학습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본 활동(main activity)을 준비한다.

본 활동이 시작되자, 먼저 학생들은 AI 튜터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진행한다. 유나는 발음 연습을 하며 음성 인식(ASR) 기능을 통해 자신의 발음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apple"이라는 단어를 잘못 발음하자, AI 튜터가 교정 발음을 들려주고 추가 설명을 제공하여 유나가 올바른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민수는 AI 번역 도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단어의 의미와 활용 예시를 확인하며 어휘력을 높여간다. 중간에 시작된 모둠 활동에서 AIDT는 자동으로 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업활동을 진행한다.

본 활동 후에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의 도움을 받게 된다. 교사 K씨는 통합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생 각자에게 적합한 추가 과제나 보충 자료를 제시한다. 학부모 또한 자녀의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가정에서 학습을 보완할 수 있다.

4. 영어과 AIDT 기반 수업 운영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도전과제

이처럼 AIDT 기반 영어교육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의 혁신을 선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고차원적 사고 발달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AIDT의 평가 방식은 객관식과 단답형 문항에 치중되어 있어 학습자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 문제풀이식 학습 방식과 유사하여 단순히 문제 풀이 능력만을 향상시키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차원적 사고 발달을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읽기 과제에서 단순 정보 파악 수준을 넘어 빈칸 추론, 글의 순서 추론, 적절한 문장 위치 결정 등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IDT와 교사의 역할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Kim, 2024a).

둘째, 학생 간 상호작용 및 교사 역할 축소 문제가 있다. AIDT가 개별 학습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음성 인식 기능 활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실 곳곳으로 흩어지거나 이어폰을 착용하고 개별 학습에 몰두하면서 학생 간 상호작용이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습자의 질문에 직접 정답을 제공하는 특성 상, 학습자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감소함으로써 구성주의 교육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학습자의 발달을 돕는 비계(scaffold)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산만함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 중 다른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디지털 도구의 감시 및 통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어과에서 자주 활용되는 모둠 수업이나 협력 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기의 도입으로 기존의 수업 모형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학술적 정직성과 윤리적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AIDT 도구가 학습자와 교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를 책임감 있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의식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모든 세대의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학술적 정직성과 윤리적 관점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4. 결론: 영어과 인공지능교과서(AIDT)와 우리나라 중등 영어교육의 도전과제

AIDT와 디지털 기술이 공교육에 도입될 때, 이를 단순히 첨단 도구를 활용하거나 에듀테크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오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도입은 교사들에게 기술적, 어학적, 영어교육학적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연수가 필요하다. 특히, AIDT와 인공지능 기술의 교수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교사들이 어학적 통찰력과 기술적 이해를 겸비한 균형 있는 영어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문장 단위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최첨단 기술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수업 모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Kim, 2024b). 이를 위해 영어학, 영어교육,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교사 연수 및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와이파이와 개인용 디지털 디바이스가 완비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에 특화된 영어 교육 모형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

〈Selected Reference〉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GM 2023-11).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im, R. (2024a). Effects of ChatGPT on Korean EFL Learners' Main-Idea Reading Comprehension via Top-Down Processing. Language Research,60(1),83-106.
Kim, R. (2024b). Effects of learner uptake following automatic corrective recast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on the learning of English caused-motion construction.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28(2), 109-133.

동문 HUFSSEEans 목소리

사진 : 이길영 교수

동문 목소리 1

유신반대 시위로 제적의 시련,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던 열정의 대학 시절

김학모 (74, 목사, 전 UBF 한국대표)

Teacher Shower 20주년을 맞아 모든 동문들이 함께 하는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니 영광스럽습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74학번인데 대학입학으로 따져보면 50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세기의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매일 매일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그 하루가 쌓여 어느 틈에 이렇게 많은 세월이 되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벌써 이렇게 먼 이야기가 되었지만 영교과에 대한 애정을 담아 지금 학부시절을 잠깐 회고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외대 입학과 휴학 (74), 복학과 제적 (75), 그리고 복적 (80)의 대학생활

저는 대학을 입학한 그 순간부터 외대를 참 좋아했고 특별히 영어교육과에 다녔던 것에 늘 자부심을 가졌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당시 외국어대학은 2차 시험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반기 1차 대입에서 실패하였으나 2차대입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에 합격하면서 이제 이 대학이 나의 대학이요, 이 학과가 내가 공부할 곳으로 정해지니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했습니다.

상징탑에서 : 필자와 이길영(80)

저는 대학에 들어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마음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입학과 함께 부득히 1년 휴학을 해야 했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당시 본관 강당에서 교가를 배우던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말이 강당이지 그냥 넓은 강의실이었습니다. 당시 영어과의 한 선배가 아주 좋은 목소리로 교가를 가르쳐주었는데 그때 교가를 따라 부르면서 저는 외대인이 되었습니다. 외대는 조그만 대학입니다. 그때는 아직 종합대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물도 몇 개 없고 학생수도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조용한 대학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생 수도 많지 않고 여학생도 적지 않아 좋았습니다.

저는 입학한 후 폐결핵 때문에 1년 휴학을 하는 동안 복학해서 학교 다닐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975년에 복학한 그해 한 달 만에 대학 휴교령이 나고 유신철폐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다니고 싶어하던 대학을 이렇게 갑자기 다니지 못하게 되니 모든 것이 얼떨떨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 집에는 형사가 정기적으로 와 나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어 강제징집을 3번이나 당하는 등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폐결핵이 있어서 군에 입대할 형편이 안되었는데도 계속 징집장을 발부해주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우여곡절 속에서 전역하고, 이제 전역했으니 복학을 시켜주지 않을까 해서 대학 학생처 사무실에 문의해봤는데 저는 이 정권이 바뀌기까지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실망했는지, 학생처 사무실을 나와 학교 앞 버스 정류장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대학의 꿈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 조그만 무역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버스를 타고 외대 앞을 지날 때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학교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10.26 사건으로 유신정권이 무너지면서 1980년에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했던 대학이 갑자기 내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대학을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순간의 감격과 감사는 정말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해 복학해 대학 정문을 통과해 학교로 들어오던 첫날, 그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80학번 동문들과 함께

2. 복적 후 대학생활

복학을 해서 함께 공

부를 하게 된 우리 영어교육과 80학번 후배들과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하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수하고 똑똑하고, 활달하고 성격 좋은 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저는 그때 영어교육과가 외대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학과로 소문이 나기를 바랬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학과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가 후배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독려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한동안 몇 명의 80학번 후배들과 함께 학생회관 1층 로비에 모여 Reader's Digest를 읽고 번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모여서 그랬는지 기분 좋고 아주 상큼한 모임이었습니다. 가을에 모의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봄학기 성적으로 받은 장학금으로 영교과 유니폼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입고 나름 영교과 자부심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영교과는 덩치 큰 사람이 별로 없어 대부분 1회전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지고 이대로 흩어지기에는 좀 억울하고 슬퍼서 학과 사기진작을 위해 선수들을 다시 모아 빙 둘러서서 큰 목소리로 영교과 응원의 노래를 했습니다. 요즘은 대학가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학교 앞 골목길 술집에 자주 모여 젓가락 두드리며 노래도 많이 했습니다. 한번은 80학번들과 동대문 이스턴호텔 나이트에 가서 밤새 춤을 추고(나도 이런 거 처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문동 학교까지 걸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겨울에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학과실에 한번 모였었는데 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눈싸움도 했습니다. 후에 한 후배는 그 때를 생각하면서 '형, 이렇게 모여서 우리처럼 순진하게 눈싸움 하는 대학생들이 있을까요?'하며 좀 신기하다는 듯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80학번 학우들은 정말 모든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80학번은 81학번, 82학번 후배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80학우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재미있게,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80학번 남학생들이 하나, 둘 군대 가고 78학번 79학번 후배들이 군 전역을 하고 복학했습니다. 이들과도 함께 공부했지만 다들 뛰어나고 훌륭한 친구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80학번의 한 여학생의 전도로 기독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영교과 후배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며 열심히 성경공부에 초청해서 실제 저와 성경공부한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녀서 좁은 외대 내에서는 제법 알려진 '예수쟁이'였습니다. 이런 학부 시절은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이름답게 기억됩니다.

3. 보물창고 같았던 복적 전의 6년 세월에 이어진 열정적인 대학 생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4년에 입학해서 75년에 제적되고 다시 80년에 복적되기까지의 그 6년 동안의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힘든

80학번 동문들과 함께 야유회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위해 나름 기초를 놓는 작업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이때 책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중당에서 세계 명작들을 시리즈로 300권이 넘게 출판했었는데 이때 이 책들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TOEFL 공부도 열심히 하고, AFKN 뉴스를 들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영어 소설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써머셋 모험의 책들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학성이 강했던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시와 소설을 썼었습니다. 신춘문예에 작품을 내 볼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80년에 복학하기까지의 6년 동안 저는 저에게 닥쳐 와 있는 외로움과 이렇게 힘써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밤늦게 혼자 공부하고 책을 읽었던 이때를 내 인생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때였다고 회고합니다.

저는 졸업 후 지금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 6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꺼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어찌보면 그 6년의 시간은 개인적으로는 엉뚱하게 보냈던 것 같아 '잃어버린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 문학적 자질도 키워졌고 인생에 대한 진지함과 철학, 그리고 음악을 나름대로 배웠습니다. 거기서 저는 고난에 연단되며 성장해갔습니다. 80년에 복학하면서 보낸 4년 동안의 학부시절은 그런 6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알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학교에 와서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조용한 아침 캠퍼스를 한 바퀴 산책하고 다시 도서관에 돌아가 책을 읽다가 수업에 들어가던 일들이, 또 소위 '예수쟁이'가 되어 그 좁은 대학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하던 일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있었던 학교 본관 뒤에 있던 미네르바 동산에서 밤마다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록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참 열정적으로 대학 시절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는 '대학 시절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던 1984년 2월 저는 아무런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대학생활을 보낸 것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4. 졸업 후에도 여전한 '영어교육과'는 내 마음 속에

저는 학부를 졸업한 후 외대 경영정보대학원을 들어가 캠퍼스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선교회 안암지부로 옮겨 고려대학교 선교 역사를 섬겼습니다. 이 때도 온 마음을 드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외대 영교과'가 있었습니다. 취업을 할 때, 신학교에 진학할 때 졸업증명서나 학부 성적표를 발급 받으러 오랜만에 외대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으면 오고가는 후배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이들을 보는 제 마음에는 두근거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수로 있으신 80학번 이길영 교수님을 만나보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저의 인생의 무게 중심에는 '외국어 대학교 영어교육과'가 있습니다. 좀 더 좁혀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거기 '영교과 80학번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길영 교수님이 저를 영교과 카톡에, 또 80학번 카톡에 초대해서 거기 올라오는 글들은 종종 읽어보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카톡에 떠 있는 얼굴들, 그리고 글들을 보는 것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때가 언제였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서슴없이 학부 때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결단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곳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외대 영어교육과' 시절을 돌이켜볼 때면 그때마다 함께 있던 학우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거기서 다시 만져보고 싶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흥분도 일어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돌아볼수록 새삼스럽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외대에는 많은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좁은 캠퍼스 공간 위로 우루루 날다가 급선회하며 넓은 하늘도 솟아오르는 비둘기 떼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 영교과 학부 후배 한분 한분들이 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땅을 박차고 올라가다 급선회해서 푸른 꿈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외대 영교과'라는 이름이 여러분 인생에 아름답고 찬란한 이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문 목소리 2
이문동의 길고 긴 인연

권용현 (79, 성공회대 교수)

1979년에 시작한 이문동 생활은 내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 내가 30년 넘게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이문동을 빼고 말할 수 없다. 2025년을 마지막으로 나는 교직에서 정년으로 물러난다.

1979년에 입학해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첫 3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 1982년에 입대를 위해 휴학하고, 1985년에 4학년으로 이문동에 다시 돌아왔다. 복학 후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도서관이다. 대학 첫 3년 동안 그곳은 그저 하나의 건물이었을 뿐이었다.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건물이 이제 내게 매일 들락날락하는 도서관이 될 줄이야. 하숙집이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 공부할 수 있었다. 그 시절이 내게 참으로 그립다. 공부를 끝내고 도서관 밖으로 나와, 정문까지 수은등 아래를 걸으며 느꼈던 뿌듯함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가장 열심히 봤던 책은 영영사전 Random House였다. 나는 이 사전을 아직도 내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다. 추억이 가득한, 손때 묻은 책을 버릴 수 없다. 이 사전을 도서관 열람 테이블의 칸막이벽에다 세워놓고 매일매일 책장을 넘기고 또 넘겼다. 사전의 밑동이 닳은 걸 볼 때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왜 나는 이 사전을 펼쳐놓고 씨름했을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 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던 문제를 파헤치고 싶어서였다. 내가 분명히 아는(?) 어휘인데, 그 단어의 뜻을 알지 못했던 기억이 나를 답답하게 했었다. 심지어 영한사전을 펼쳐놓고도 해결하지 못했었다.

긴 세월이 지나, 이젠 정년을 대략 1년 앞두고 있다. 요즘은 영어 다의어에 대한 원고 작업을 해오고 있다. 총 10권이다. 다의어란 한 단어에 여러 개의 의미가 들어 있는 단어이다. 이 시리즈의 뿌리는 이문동 도서관에서 씨름했던 이유와도 닿아 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사전은 gift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a) 선물, (b) 재능, (c) 증여, (d) 거저먹기. gift의 의미들 '선물, 재능, 증여, 거저먹기'는 공통분모를 가진 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으로 여겨, 이런 유의 단어를 다의어로 부르고 있다.

이들이 정말 남남일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표현이 서로 다른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다. 표현(껍데기)이란 문맥에 따

라 다르게 드러난 모습이다. gift의 개념(알맹이)은 '공짜로 주어짐'이다. 이 개념이 특정 문맥을 만나면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값을 치르지 않으니, 선물은 '공짜로 주어지는' 물건이다. gift '재능'이란 노력을 기울인 대가로 얻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 '공짜로 주어지는' 능력이다. '증여'도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과 다르지 않다. '거저먹기'도 힘이나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공짜처럼 주어지는' 것에 해당한다.

개념이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현상은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 것과 같다. 사람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겉모습이 달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딴 사람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른바 다의어는 속을 잘 들여다보면 더 이상 다의어가 아니다. 사전이 수록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란 것들은 표현, 즉 껍데기에 불과하다.

다의어의 개념이 다양한 문맥을 만나고, 그 문맥에 맞춰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 사전에 수록된 것임을 알면, 단어를 사전에 적힌 대로 마냥 암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아직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 대학 4학년에 복학하여 영영사전과 씨름하며 했던 나의 고민도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문맥이라 내가 창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영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면서도, 나는 gift '(a) 선물 (b) 재능 (c) 증여 (d) 거저먹기'를 한꺼번에 보지 못했다. 하나씩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만났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gift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목을 키울 기회가 애당초 없었다. 이것은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야 함에도, 첫날은 귀만 보고, 다음날은 코만, 다음날은 눈만, 또 다음날은 입만 보는 식과 같다. 사람의 얼굴 부위를 각각 따로 본다면 그 사람의 전체 얼굴을 알 수 있을까? 이문동 도서관에서 철없이 시작했던 작업이 30년 세월을 건너뛰어 정년을 앞둔 시점에도 끊기지 않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될 줄이야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

동문 목소리 3
진학지도는 우리 교사들 손으로…

박권우 (89, 이대부고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대부속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종종 '수박'선생님이라고 불리어 지곤 하는데, 대입 관련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수박 먹고 대학 간다'의 저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998년 인천 숭덕여자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여 2010년부터는 서울 이대부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쉬지 않고 3학년 수업을 맡으면서 대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학 입시를 하게 된 계기는 3학년 담임교사로서 초창기 때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학부모 대상 대입 상담을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부모님들은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면 그 동안 자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 투자한 당연한 결과로 여기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님들은 학생이 불합격하면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졌음에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 때문이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진학지도가 이루어져서 제가 맡은 학생들 만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모님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대학 진학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맡은 반 학생들을 위해 만든 책자가 현재 '수박 먹고 대학 간다'(이하 수박 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에 의해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한 수박 책으로 연수를 요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서 2006년부터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전국 교사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하여 접수 시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고 자리가 없어서 무대 위나 바닥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 큰 강당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가톨릭대학교 미카엘관에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4,200석)에서 3월과 7월 셋 째 주 토요일에 전국 진학 담당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본편 연수에는 전국 728개 고교에서 4,250명, 7월 실전편 연수에는 전국 748개 고교에서 4,250명의

매년 전국 고교진학담당 교사 4,250명을 상대로 연수를 주관하는 '수박 먹고 대학간다'의 저자로서 대입 진학지도에 정통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강의 현장에서 맡은 학생들을 위해 5시간 동안 마치 수험생처럼 강의를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공교육이 살아있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맡은 대입 업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2020년에 전국 중·고등학교에 1명씩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되었고, 현재는 3학년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학년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은 4월까지는 대입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각 대학들의 전형 특징 등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전형을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간고사 이후 5월부터는 수업 시간에 3월 전국 연합학력 평가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3학년 열 두 반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1 대 1 진학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은 수업 시간에 4명~6명 정도 실시하며, 공개수업처럼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도 참석 가능하므로 컨설팅 순서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1 대 1 진학 컨설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학생들의 절반 이

상의 학부모님께서 참석하며, 최근에는 어머니뿐 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함께 참석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을 신뢰하고 학교 안에서 대입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를 4일(월요일 ~ 목요일. 18:30 ~ 21:30)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총 12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대상 진학 관련 아카데미와 다른 점은 12시간을 주제별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수박책(약 1,150쪽) 중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550쪽 정도로 요약해서 제작한 교재로 제가 직접 저자직강으로 12시간을 강의합니다.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는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년별로 1회씩 일 년에 2회 개최합니다. 1학기 4월에는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와 각 대학 전형의 특징,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면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대입을 준비하는 기본임을 강조하고, 2학기 12월에는 2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예비 고3으로서 다음 해 대입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교육에서는 들을 수 없는 본교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2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4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부분 참석합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가 되어 영어 교사로서 수업을 잘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상담을 통해 소외되었거나 상처받은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꿈과 비전을 학생들에게 심어 줄 수도 있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대입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함께 진로를 고민하면서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학창 시절에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들의 따듯한 미소, 위로와 격려 등으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의미있게 보내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내리사랑처럼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업으로, 상담자로, 대입 전문가로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동문 목소리 4

가난했기에 어렵게 공부했던 영어, 이제는 나의 삶의 'Routine'

김해창 (91, 경기 통진고 교사)

태어나보니 집은 김포반도에 있는 문수산 자락에 있었고, 한강 너머 북쪽으로는 북한의 개성이 희미하게 보였다. 집 앞으로는 여의도만한 들판과 염하[강] 건너 강화도의 고려산이 보였다. 평생 농사를 짓던 부모 님의 농삿일을 도우면서 사남매가 백가구 남짓한 마을 한가운데 있는 문수국민학교를 다녔다. 이후에는 염하강 강둑길을 따라 십리를(약 4km) 걸어서 강화대교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읍내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걸어다녀야 했고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갈아 타야만 했다. 고등학교 때는 밤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오면 11시가 다 되었다. 집에는 나만의 방도 없었고 변변한 책걸상도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서대문에 있는 서울학원이라는 단과 학원에 가서 재수를 하면서 영어와 수학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학력고사를 준비했다. 85만명이 넘는 수험생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국어와 사회 과목들은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지만 영어가 가장 문제였다. 다음 해 서울에 있는 K대학교 일본어 교육과를 들어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의 중학생 영어 실력으로 평생을 잘 살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학력고사를 보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에 가까스로 입학했다. 그런데, 영어를 전공하면 영어 실력이 쑥쑥 늘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영교과 학우들은 영어를 잘하고 좋아해서 입학 했고, 많은 대학생들이 각종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나도 SDA(삼육)외국어학원을 일년여 다니고 덕수궁 옆에 있는 영국문화원에 가서 영어회화를 배우면서 조금씩 내 생각을 영어로 말 할 수 있게 되면서 영어가 재미있어졌다.

대학 졸업 후, 김포 고향에 돌아와 지금까지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도 매일 EBS 라디오 앱인 "반디"를 활용해서 '입이 트이는 영어', '귀가 트이는 영어', 'Easy Writing', 'Power English'를 매일, 교재를 활용해서 3시간 이상 쓰고 말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Ireland 연수, New Zealand 연수를 다녀왔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영

어교사 연수에 참가해서 방학동안 호주연수, 미국연수(UC Riverside)를 다녀오기도 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가지 못한 것이 평생 아쉬웠다. 집이 가난하니까, 영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후배들은 과감하게 그런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기 바란다. 가난하면 꿈조차 쪼그라진다고 한다. 중학생 영어 실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공부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영어를 전공하고 평생을 영어교사로 살아왔다.

'Nothing is fun, until you are good at it'. 한 번도 잘하거나 좋아한 적이 없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공을 했고, 평생 고군분투하던 영어가 이제는 나의 삶의 일부 'Routine'이 되었다. 퇴직하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그 나라 대학 강의도 듣고 여행도 할 생각이다. 어렵게 배운 영어를 활용해서 내 삶을 더 재미있고 풍요롭게 누릴 생각이다. 국어교사, 사회교사 말고, 영어교사가 되기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영교인들에게 영광 있으라~~^^*

동문 목소리 5

가고 싶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현정 (95, 변호사,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 교수)

저는 졸업 후 스위스 은행 등 싱가포르와 서울의 금융 회사에서 8여 년간 근무하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로 입학하여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률사무소 율리 대표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독일로 와서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인권법 석사학위와 헌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대학교 법과대학과 국제인권학 석사 과정에서 비전임교수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헌법해석학,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연구, EU 차별금지법, 인권법 판례 연구와 전환기적 정의입니다. 강의 외에는 학생들 상담, Mentoring, 헌법과 국제인권법 관련 개인 연구와 제가 속한 연구실에서 함께 하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 연구 활동으로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 8월에는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세계법철학자 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하였고 9월에는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초대받아 "독일 헌법상 가족 개념의 변화"에 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교사의 꿈을 갖고 영어교육학과에 입학하였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를 하면서 통역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3학년에 복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역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4학년 여름 방학때 아버지가 실직할 위험에 처하였고 장녀인 제가 경제활동을 해야 해서 급하게 취업 준비를 해서 입사하게 된 곳이 스위스 은행 서울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주식 딜링룸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고 동료 대부분은 영어가 모국어인 교포들이었습니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하였지만 업무에 적응한 후에는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이사님의 소개로 싱가포르에 있는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영국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 지점으로 다시 서울에 근무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우리나라에도 로스쿨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스쿨 진학 전에 개인적으로 헌법이 재미있어서 신림동에서 헌법 기초 강의를 한번 들어본 경험 외에는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또 학부 졸업 후 바로 로스쿨에 들어온 동기들보다 거의 열 살이나 많은 데다가 로스쿨 재학 시절 세 아이의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 공부와 시간 활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학과 공부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예습, 복습을 위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변호사 시험 준비 기간에는 집 근처 독서실에 다니면서 핸드폰을 독서실 신발장에 넣고 입실하여 하루에 열 시간 정도는 공부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여 서초동에서 송무 변호사 활동을 2년 정도 하였는데 처음 해보는 업무이기도 하였고 서툴기도 해서 업무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인권에 관심을 두고 법학 공부를

시작하여 변호사가 되었는데 인권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어를 전공한 변호사이다 보니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난민 소송을 많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서면과 소송을 준비하여도 단 한 건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좌절도 하고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경쟁이 심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가족이 모두 독일에 와서 남편과 제가 독일 바이에른 주에 소재한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국제인권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면서 독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와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독일어를 새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모두 독일에 와서 남편과 제가 둘 다 석사 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서 의료 공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독일어로 강의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영어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국제 인권학 석사 과정을 마친 상태여서 독일어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독일에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하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께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강의안을 영어로 만든 후 독일어로 번역기의 도움으로 번역을 한 다음 외워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독일 학생들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럴 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메일로 질문하면 자세히 답변해 주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유학을 왔다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들, 가족의 지원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2021년 박사학위를 마친 후 박사 논문을 편집 수정하여 Springer라는 출판사에서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이라는 책을 출간한 일이었습니다. Springer 출판사에서는 박사 논문 중 우수한 성적을 받은 논문을 엄선해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제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서 출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올해 10월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우수 강의 총장상을 수상하게 된 일입니다. 저희 학교 법학부에서는 외국인 교수로서는 처음 수상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2017년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독일어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워서 강의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을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계획하지 않아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계획하는 대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 요건에 따라 취업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 원했던 통역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였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내 관심사를 찾고 도전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와서 직업도 없고 독일어를 못하던 상황에서도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업이나 학교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대학교에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여러 가지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것 등에 대하여 본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기회를 준 가족과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있는 선배나 멘토를 찾아서 궁금했던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에 온 이후에 석사 논문 지도교수님께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항상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은 저에게 가장 친한 언니이자 멘토입니다. 인생의 멘토를 찾고 그분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문 목소리 6

새롭게 뛰는 가슴으로! in Singapore!

강순호 (00, 싱가포르 국제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에 재직 중인 영어교육과 00학번 강순호입니다. Teachers' Shower가 벌써 20주년이라니!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가 많이 낯설기도 하고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서 학교에 대한 소개와 교사로의 삶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는 전 세계 16개국 내 34개 재외 한국학교 중 하나이며, 싱가포르 내 유일한 한국학교로서 양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 그 위상이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의 학교 행사 참여는 물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방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방문 그리고 대통령 연설에 교사 초청 등은 한국에서 교사로 재직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 마치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사가 된 것 같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싱가포르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사회, 과학 교과 일부도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수업하고 있어 영어 사용 환경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학습 동기가 매우 높고 어학 능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영어 교사들이 수업하기도 최상의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 교과를 원어민이 가르칠 수 있는데 왜 한국인 영어 교사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소통,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과의 소통, 원어민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서 한국인 영어 선생님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10년 전쯤 Fulbright Language Teaching Assistant로 미국 펜실베니아주 소재 드렉셀 대학에서 1년간 일하면서 원어민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고, 한국에서도 원어민과 팀티칭을 해 본 경험이 있어, 원어민과의 협업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경험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씩 맞춰가는 데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르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한국식 평가와 가르친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TOEFL처럼 새로운 지문을 제시하는 평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기 충분한 시간인가 봅니다. 초빙으로 부임한 첫해 MUN대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영어원어민 선생님들께 심사만 의뢰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원어민 부원들이 예산을 기획하고, 대회 진행을 하고, 나아가 영어 축제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까지, 정말 이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TF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이 고되고 힘들다기보다는 벌써 내년도 MUN대회가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또, 현지학교와 국제교류를 기획할 때에도 아는 인맥을 총 동원해 주셔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학교를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 종교적 이유로 Halal인증된 음식만 먹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주어 간식 준비를 섬세하게 할 수 있었고 한국의 어떤 문화를 보여주면 좋아할 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주어 한국 민화 체험, 태권도 체험, 그리고 K-pop랜덤 댄스로 만족도 높은 국제교류, 그리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는 국제교류로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곳에 행정가로 부임한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고용휴직을 하고 초빙교사로 선발된 영어교사로 TOEFL, SAT, 지필영어, 영어원서, 영어회화, 영어기초문법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많은 과목을 가르치냐구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해, 새학기 준비하는 워크샵 2일차에 부장 업무 준비 및 수업 준비로 어깨에 담이 왔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의 영어 수업과 180도 다른 환경이라 정말 수업 준비가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인 영어교사는 저 혼자라 다른 영어 수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저 또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처음에 기 싸움하듯이 자꾸 영어로 토론하자고 했던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주말은 물론 새벽까지 수업 준비를 했던 제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너무 '영어교사'로서의 삶만 들려 드린 것 같네요. 마치 워커 홀릭처럼... 하지만, 일만 하고 있기에 싱가포르의 자연 환경이 너무 아깝죠. 동남아시아답게 1년 내내 여름이라 다소 습하긴 하지만, 비가 와도 금새 쨍하고 개는 날씨여서 현지 사람들이 실외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차량 등록 수량을 통제하는 나라여서 저 또한 뚜벅이로 지내는 터라 자연스럽게 걷는 일도, 뛰는 일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독도를 달리다'라는 행사에 지원하여 전국 교사들이 마라톤 인증할 때 저도 마리나베이샌즈를 한 바퀴 뛰며 마라톤 인증을 처음으로 해 보았고, 교사 동아리에서 테니스, 필라테스도 배우며 평생 안 하던 운동을 주 2~3회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빙교사로서의 싱가포르 생활도 1년 남짓 남았네요. 지내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적어서 그런지, 요즘 따라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르른 자연, 심심하면 옆 학교에서 담 넘어와서 울어대는 닭들, 그리고 눈치 슬슬 보다가 교무실 무단 침입해서 간식 훔쳐가는 원숭이들까지 벌써 그리워 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에 근무한 덕분에 겪을 수 있었던 이런 경험들, 또 대한민국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영어 교사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해주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야말로 땀 흘리며 달렸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새롭게 뛰는 가슴으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에 저처럼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외대 영교과 1호,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영어교사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동문 목소리 7

생각지 못한 곳에서의 새로운 길

나세원 (02, LA 약사)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Los Angeles 근교에서 살고 있으며,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을 회고해 보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공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길영 교수님의 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저는 한 학생의 멘토가 되었고 그 학생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가르치고 상담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교사의 꿈을 더욱 키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임용고사를 보았지만 낙방했고, 그 후 기간제 교사를 6개월 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는 어학연수 및 단기 TEFL 과정으로 6개월을 머무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기후에 반해서 더 머무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 사시는 이모님이 더 공부하고 싶으면 약사 공부가 좋겠다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Community College를 다니면서 선수과목을 이수했고, 약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4년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을 하고, 시험에 통과하여 약사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영어였습니다. 약대에 다닐 때는 페이퍼도 많이 쓰고 크고 작은 presentation도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다른 미국 친구들과 나란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기에 영어에 대한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대 영어 교과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의 진로는 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 식약청 등 다양합니다. 미국 내 큰 편의점은 보

통 약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 내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량은 많고 바쁘지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전과 약을 확인하는 일 외에도 업무의 많은 시간을 환자나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담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큰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Southern California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곳 소개를 하자면 이곳은 일년 내내 따뜻하고 좋은 날씨가 계속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한인들이 살기에 음식과 시설에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이민자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곳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인 얘기해줄 때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시는 후배님들, 교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 중 저는 교사라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미국 유학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후배님들 앞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삶의 궤적마다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본인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알아보시고, 기회를 만나면 도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동문 목소리 8

미 Iowa 주립대 대학원 응용언어학 전공 박사과정에 우리 동문 세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미국 가운데에서, 그 많은 미국의 대학 가운데에서, 또 그 어느 한 대학에서, 그것도 동일한 학문분야에 세 명씩이나 영어교육과 동문이 있음이 쉽지 않은데요, 여기 그 세 동문을 소개합니다.

이영주 동문 (03), 나인영 동문 (11), 김기중 동문 (08)이 그들로서 이들은 모두 Iowa State University 대학원 박사과정 (응용언어학)에 재학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영어교사를 하다가 유학을 갔었고 가보니 우연히 세 동문이 같은 학교 같은 프로그램에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교사의 경험이 있기에 그 만큼 더 한국 맥락에 맞는 현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동문 목소리 8 - 1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영주 (03,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Teacher shower의 20주년을 축하하는 호에 저의 이야기를 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떠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담담히 지난 5년간의 여정을 회상하고자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육아휴직을 하던 와중에 번쩍거리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이내 '공부를 하자'라는 벅찬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길영 교수님을 찾아뵈었고, 늦었지만 박사 학위 과정에 도전하겠다는 야심 넘치는 계획을 전해드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두 아이를 동행하는 이민에 버금가는 유학길에 흔쾌히 동의해 줄 사람은 없었기에, 교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자네의 결정을 지지하며,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며, 교수님께서는 저의 무모하고 또 용감한 결정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박사 과정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사 학위만 갖고 있었기에 석사 학위 과정으로의 입학이 우선 과제였고, 석사 입학 이후에도 두 아이를 키우며 주부이자 학생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바라던 학교에 석사생으로 입학하고, 오랜만에 학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대학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아침에 두 아이를 학교와 유치원으로 보내고 나서야 온전히 학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학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당시의 노력이 훗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을 믿으며 분주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날을 엄마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도 잘 해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속상해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졸업을 확정 지은 논문 심사 날에 마음 벅차하며 논문 심사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 날은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이후 저는 이곳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응용 언어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석사 입학을 준비하며 요원하게만 보였던 박사 과정의 시작이라는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저는 학생이 되었고, 1학기를 보내고 있는 저는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지금 보내는 일상이 신기해서 감사해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제가 그 당시로서는 너무 멀리 있는 꿈을 바라보며 무모해 보였던 도전을 한 것처럼, 지금도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고, 행복하기 위한 여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힘들지만, 뿌듯함을 느끼시나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혹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을 믿고 신념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문 목소리 8 - 2

춥고도 긴 Ames의 겨울을 버티며 잘 적응하고 있어요

나인영 (11,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선후배님들을 글로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범대 지하에서 열심히 떠들고, 먹고, 사범대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졸업한지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잊고 있었는데 문득 다시 생각나니 즐겁네요.

저는 임용고시에 16년도에 합격해서 서울 숭곡중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지도하면서 정신없는 첫 해를 보내고 영어교육과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시키려고 열심히 수업 연구하고 준비한 것도 기억 나네요.

한 4년쯤 지났을까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과 수업준비로 타성에 젖었던 것 같아요. 석사공부를 하면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다시 되찾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이왕이면(?)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로 가보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아무 준비없이 비행기에 타고, 도착해서 갑자기 고향을 잃은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기도 하였네

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나라에서 건너온 영어교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의미있었고, 무언가를 다시 도전한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석사유학이 2년밖에 안되서 아쉬움을 느끼고, 박사를 도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이곳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건너와 현재는 응용언어학과를 전공, 통계학을 부전공하고 있으며, 음성학/음운론 관련 발음 연구 및 AI 접목 쓰기 및 말하기 평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고년차 박사생이 되어버렸고, 하고 싶은 연구 분야는 많지만 그 중 하나만 꼽아야 하여 AI 접목 interactive speaking assessment 개발 관련 논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 음식점 하나 없는 이 작은 에임즈라는 캠퍼스 타운에서 길고 긴 겨울을 나야한다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꽤나 잘 적응한 것 같아 스스로 기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년 정도 남은 논문 학기, 열심히 마무리해서 꼭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고 싶습니다.

동문 목소리 8 - 3

서울-자카르타-서울-에임즈, 나는 역마살 교사

김기중 (08, 아이오와 주립대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08학번 김기중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우기면 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우기지 못할 상황이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지면으로 선후배님들과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역마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졸업하면서 바로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임용이 되어 교직을 시작하였고, 2019-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중,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중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고, 작은 학교에 근무하다보니 생활지도부장 등 보직도 맡게 되었지만 시간을 쪼개어 유학을 준비하여 2023년 8월에 휴직을 내고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응용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년차가 된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4명의 한국인 박사과정생이 계신데, 흥미롭게도 그 중 3명이 나인영 선생님(11학번), 이영주 선생님(03학번)과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외대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학풍을 다른 학교의 끈끈한(?) 선후배 문화에 비교하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 경쟁적인 프로그램에 4명의 한국인 중 3명이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외대 영어교육과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평가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 등 새로운 기술을 언어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GPT 활용 역동적 화용론 평가(GPT-powered Dynamic Pragmatics Assessment) 도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외대 영교과 동문 세명(왼쪽부터 김기중, 이영주, 나인영)이 함께 산책하며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아름답듯, 이곳 에임즈의 가을도 꽤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김미래 (16, 장평중 교사)

동문 목소리 9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살아가기 위한 5년차 교사의 성장 스토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장평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육과 16학번 김미래입니다. 2016년도에 입학한 순간부터 저는 한국외대와 항상 어느 방법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영어교육과의 뉴스 레터에 저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외대에서 보냈던 4년을 돌아보면, 행복한 추억들과 배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충만히 보냈던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1학년 학과 대표를 맡게 되어 일일호프 사업 및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하며 훌륭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끈끈한 단합심과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고, 다양한 선후배님들 및 동기님들과 진로를 위해 부단히 쏟는 노력의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감사하게도 서울 영어 임용에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학생으로서의 생활에서 장평중학교 교사로서의 삶으로 빠르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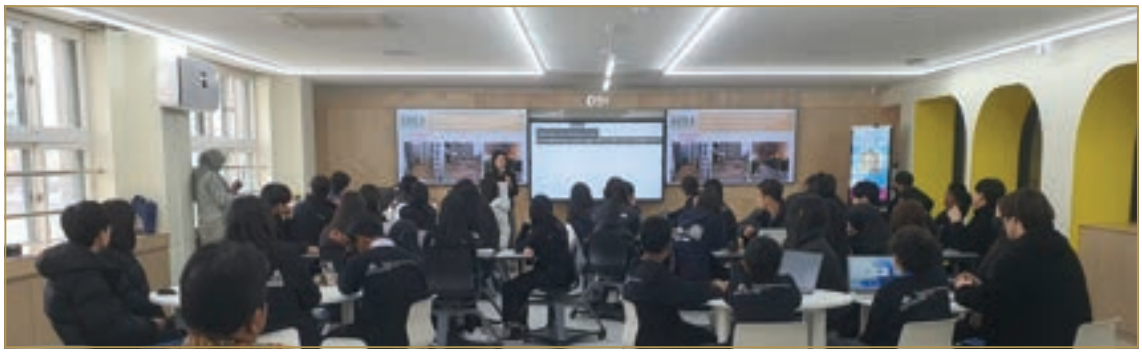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도 겨울에 졸업을 하고 교사 발령을 받았던 터라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하였고, 교직에서 했던 저의 첫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학생과의 교류는 Zoom 또는 전화로 진행되었고, 대학 생활 중 그려오던 교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30년 차 선생님도 1년 차 선생님도 일괄적으로 초기화된 온라인 교직 경력에 다 같이 혼란스러워하며 공부하고 어려워하며 배워나가는 과정의 연속에서 무언의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언제쯤 가질 수 있을지 갈망하던 차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나오는 시간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자유학년제, 교복, 학교폭력, 학년부 기획, 교원학습공동체, 수업 혁신 등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교사로서의 적응 기간도 탄탄히 다져가는 생활에 몰두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던 교사 3년 차에 접어들 때쯤, 격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사고하고 언제든 모양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교사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대학교 AI융합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하여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4시 반 퇴근 후 약 2시간가량 이동의 끝에 대학원에 도착해 샌드위치를 사서 6시 반에 강의실에 딱 맞게 출석을 하고, 9시 반에 강의가 끝나면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최소한의 수면을 취하고 다시금 출근하는 일과 대학원의 병행 생활이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교직 생활을 위한 의미 있는 투자를 한다는 반가움에 AI융합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최대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위한 AI 융합 영어 쓰기 수업 모형 개발'이라는 학술지를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에 투고하였고, '프롬프트 리터러시와 영어 읽기를 위한 AI 융합 수업 모형 개발'을 주제로 석사 졸업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석사 졸업 후에는 대학원을 다니며 시작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사 과정 동안 배웠던 영어교육학과 영어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AI 융합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새교육 교육 신문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원고를 투고하거나 AI 관련 강의를 하기 위해 인근 중 · 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강의 교안을 개발하거나 출판사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심심할 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과 일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삶이 곧 일이고 일이 곧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흐름에,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지내다 보니 벌써 교사 5년 차가 되었다는 사실에 시간의 속도를 체감합니다. 이렇게 대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의 타임라인을 돌아보며 매 순간 제가 했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미래의 저를 만들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유연하고 회복탄력적으로 지내고자 하는 다짐을 영어교육과 선후배님들과 동기님들 앞에서 선언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학생 활동

흐드러진 벗꽃의 향연 아래 영어교육과 재학생들의 봄

사진 : 이길영 교수

재학생 활동 1

예비영어교사경연대회 – 〈최우수상 수상 인터뷰〉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듣기와 쓰기 중심의 영어 수업 혁신 – 소통과 표현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시간

최윤영 (22), 황규빈 (22), 최원(22)

1. 예비교사 수업경연대회를 하고 난 뒤의 소감을 말해주세요

최윤영(영어교육과 22) : 저희 팀은 수업 activity를 결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어떤 skill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팀원끼리 많이 고민한 끝에 최근 한국식 영어교육에서 보충이 필요하다고 느낀 listening skill을 writing skill과 융합하는 activity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Main activity를 결정한 후로는 introduction부터 pre, while, post-listening, 그리고 wrap-up까지의 단계를 최대한 자세하게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수업시간에 배웠던 개념들과 그 개념의 활용법을 단계마다 소소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했으며, sub-activity를 결정할 때도 다양한 영어교육 전공 과목에서 배운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팀원들과 토의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본선에서 수업 시연은 팀원 중 한 사람만 할 수 있었지만, 영어교과교육론 수업에서 과제로 수업 시연이 있어서 저희 팀은 모두 수업 시연을 준비하고 실제로 영상도 찍어서 서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나 communicative approach에 기반한 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interaction하는 모습도 충분히 시연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

기에 그와 관련된 gesture, instruction, feedback 등을 시연에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팀이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시상식 당시 수상 소감을 물어보신 학과장님의 질문에 소주 궤짝으로 마실 거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원들끼리 다른 과제나 공부로도 바쁜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더 행복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시상식 당시의 수상 소감은 시상 당일 실현했고,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 지금도 뜻깊은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2. 이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교사로서의 고충은 무엇인가요?

황규빈(영어교육과 22) : 수업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수업 시간 내의 교사의 언행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학생의 입장에 서서 교수자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에 선생님의 수업 방식, 수행평가, 모둠 활동의 방식 등 정말 많은 것에 속으로 불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한 차시의 수업을 진행할 때 정말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둠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있지 않도록 예시를 보여주며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자료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학생들의 듣기 & 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dictogloss' 활동을 계획하면서도 적절한 시간 분배 또한 생각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 반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과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모두 있기에 모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교사로서의 고충을 팀원들과 함께 토론하며 해결해 나간 경험이 학생과 교사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3. 바람직한 교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황규빈(영어교육과 22) : 바람직한 교사란 소통할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학생이 영어를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 문법 하나를 배우더라도 학생들이 실제와 비슷한 문맥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이 교사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교실 분위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영어 수업과 관련된 질문과 더불어 교우관계, 진로상담 등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일 같이 보는 '어른'이기도 하기에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언행의 사용과 드넓은 아량으로 학생들과 소통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 예비교사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학우분들에게 한마디

황규빈(영어교육과 22) : 같은 사범대 동기 혹은 선후배들과 수업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분명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비슷한 수업을 들었어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만 합니다. 한 팀으로써 하나의 수업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학생들을 위한 알맞은 영어수업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최원(영어교육과 22) : 수업 경연대회에서는 단순히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조원 혹은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다른 학우분들의 수업을 보며 내가 영어를 가르칠 때 무엇을 중시하는지, 반대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이 경연대회를 준비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값진 경험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배웠던 다른 수업들의 지식과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을 준비한다면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조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영(영어교육과 22) : 전공 수업을 배울 당시에는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activity를 결정하고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나, 수업 시연 때 feedback이나 instruction을 제공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도 많은 고려사항을 주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경연대회를 준비하실 때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정리하고 수업 지도안 작성이나 수업 시연 준비에 활용하시면 보다 우수한 예비교사에 걸맞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결과가 따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챙겨야 할 것 많고 해야 할 것 많은 사범대지만 그만큼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니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영어교사경연대회 – 〈우수상 수상 인터뷰〉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

문정현 (21), 심현지 (22), 이승훈 (20)

Q. 예비교사 수업경연대회를 하고 난 뒤의 소감을 말해주세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입학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배운 모든 것이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당연하게 들릴 말을 저는 '예비교사 수업경연대회'를 통해서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communicative'하고 'authentic' 한 수업지도안을 신선하게 만들고 싶어서 활동, 자료 및 도구를 계획하는 데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수업의 구성요소 하나 하나마다 사용하는 이유가 타당한지, 꼭 필요한 요소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들을 직접 고민할 수 있었고, 실제 교사처럼 수업을 준비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시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압축된 시간 안에 보여주는 쇼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상당히 세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회 당일 모든 팀의 수업을 집중하면서 차분히 분석하는 것, 심사위원 및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듣는 것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3학년 1학기는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능력과 나의 능력에 대해 여러 고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고민의 방향성이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고 꿈에 대한 동기를 다잡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과 사람들과 조금씩은 달라도 결국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후회없이 공부하고 배워가고 싶습니다.

Q. 이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교사로서의 고충은 무엇인가요?

저희 조는 수업지도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있는 수업이 될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 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활동이 학생에게 유의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학생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활동을 수정하고,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는 것 등등 교

사의 디테일한 노력은 잊고 지나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수업지도안을 만들고 더 나은 수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듬는 작업은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입니다. 어려움을 느꼈던 또 하나의 부분은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상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의 흐름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많은 노력과 경험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실제 교단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교사로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처럼 수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수업이지만, 그런 긴 시간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Q. 바람직한 교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수많은 교실이 존재하듯이 수많은 모습의 교사가 존재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학생이 부담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예비교사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학우분들에게 한마디

대회 준비 초기에는 방향을 잡기 어렵고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팀원들과 고심 끝에 Lesson Plan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더할 나위 없이 큽니다! 학우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우리 조가 원하는 궁극적인 수업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과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훌륭한 예비 영어교사로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

재학생 활동 2

포도농장 생태교육
‘흙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햇빛을 가득 담은 생태현장교육 참여

한시은 (23학번)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방학을 이겨내고 가을이 시작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 외투를 꺼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번 가을 경험했던 소중한 추억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흙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프로그램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는 프로그램의 홍보 게시물을 보고 나서부터입니다. 대학생들을 겨냥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티내는지, 유쾌한 문구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울해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고 싶은 사람’, ‘AI와 진검승부를 해 보고 싶은 사람’, ‘도시에서 미래가 안개와 같은 사람’이 참가대상인 프로그램이라니… 고민하고 있던 차에 동기가 선뜻 함께 참가하자고 해 주어 기쁘게 응하고 말았습니다. 또 ‘반려 미생물’이 무엇인지, ‘설거지 놀이 프로그램’이 뭔지 참여 인원끼리 즐겁게 이야기하던 기억도 납니다. 프로그램이 폭우 때문에 한 번 연기되었었는데 그때의 아쉬움과 다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기도 하네요.

햇빛을 먹는 방법

‘흙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한 마디를 꺼내라고 한다면, ‘포도를 먹는 것은 햇빛을 먹는 것과도 같다’라는 문장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설명을 찬찬히 들으면 직관적인 의미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선 포도는 태양이 준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 흡수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는 포도의 잎사귀를 만들며 열매를 영글게 하지요. 결국, 포도 한알 한알은 햇빛을 가득 담은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포도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입에 넣고 소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도가 온 힘을 다해 햇빛으로 만든 에너지와 생명력을 몸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포도가 빛을 품고 그 빛이 다시 인간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순환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먹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매끼 햇빛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먹고 있는 것인 셈이죠.

그렇다면, '먹는다는 행위' 나아가서 '요리한다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인간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지식은 인류 최초의 지식이자, 가장 유용한 지식으로 사용되었고, 먹지 못할 것을 '먹을 수 있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요리'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통해 자연의 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고, 각기 다른 맛과 형태로 나눕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산물을 기른 농부, 그것을 요리한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이 하나의 원으로 연결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행위는 여러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각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그 과정과 역사를 되새기며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생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생태중심교육

교외로 나가 자연을 느끼는 체험을 하며, 또한 '먹을 거리'를 직접 수확하는 체험을 하며 농부님은 점차 교육은 다른 방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는 지적 인지능력 학습과 교과 학습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장애인이나 학습장애인의 참여를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지적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학생들을 비정상적,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실패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휩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체험하고 농업을 배우는 방식으로 누구나, 어떤 지적 수준을 가졌든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눈을 조금만 돌리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농촌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든 유년으로 돌아가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통한다는 농부님의 말씀을 듣고, 그 풍경은 어떤 풍경일지, 현재 치열한 경쟁에서 자연으로 조금 물러난 학생들은 어떠할지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리 치유 프로그램

이번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은 모든 참가자가 요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파이어스틸과 목화솜, 장작 등을 사용하여 불을 피우는 것부터 직접 쌀을 씻어 솥에 밥을 짓고, 채소를 손질하여 요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손으로 만지고 마음을 담는 치유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 직접 재료를 다듬고 볶으며 오고가는 이야기… 이것들은 감각을 하나로 열고 엮어주었고, 하나의 식사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감사함 또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시는 요리연구가가 계셔서 화성 전통식 꽃게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매콤한 양념과 담백한 꽃게의 맛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인상깊은 맛이 났습니다. 다음에 가면 꼭 다시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모두의 효모로 만든 포도주

해가 지고 어둑해질 때쯤 포도주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이 체험의 특이한 점은 별다른 도구 없이 손으로 직접 으깨 즙을 내는 방식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효모를 첨가하지 않고, 손에 깃든 미생물들이 발효 과정에 관여하여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포도를 으깨는 촉감 익숙하지 않기도 했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몇번 손을 놀리다 보니 점점 그 과정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으깨다 보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명확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니 보람찬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으로 직접 만든 포도주는 아직 저희 집에 남아 있습니다. 발효과정을 함께하다보니 은근 정이 들기도 했고요. 3일차에는 탄산이 올라오고, 약 7일차부터는 포도주의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 마실 날을 잡아야겠지만,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풍미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손의 온기가 담긴 포도주가 이번 체험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흙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나 자신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식재료와 음식의 가치,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 선배님들과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해주었던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면 망설임 없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재학생 활동 3
들어보셨나요? '학기제 실습'

김하은 (20학번)

저는 2024년 3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15주간 창동에 있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기제 교육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 학기제는 외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우리 영어교육과에서는 저를 포함한 세 명이 영어과 교생으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기존 한 달 실습과 달리 외대 기준 한 학기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목,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시스템이어서, 실질적인 근무 일수는 42일로 한 달 실습과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외에는 아는 바 하나 없이 흥미 하나로 학기제 교생을 신청한 사람인데요, 물론 막연한 상상과 기대만 갖고 실습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대충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정보가 있었다면 실습 지원을 고민할 때 또 다른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기제 실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관심 있으신 학우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겪고 배운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정보는 없을 수 있으나, 소감문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기 초반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 차에는 교장, 교감, 연구부장, 교과 담당, 학급 담당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전반적인 학교 운영 사항과 실습 학기제 운영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1주 차 마지막 날인 수요일부터는 담당 선생님들 수업에 참관도 했습니다. 저는 학급 담당 선생님의 담당 과목도 영어여서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각 선생님당 주 2회씩 적어도 4회는 고정적으로 참관을 했습니다. 다른 과목도 참관하고 싶다면 쉬는 시간에 찾아뵙고 여쭤보면 됩니다. 2주 차에 본격적으로 학급에 들어가서 소개도 하고 조례, 종례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여러 지도 선생님들께 교직 실무 연수를 수강했습니다. 한 달

실습에서도 각 담당 선생님께 연수를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습 학기제는 기간이 길다 보니 더욱 다양한 연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3월부터 6월까지 들은 연수가 총 21개가 됩니다. 나이스에서 기안문을 작성하는 과정, 연도별 대입 결과 분석 파일 등도 실제로 볼 수 있었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학교 운영 사항을 현장 실무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2주 차 이후로도 전반적인 교생 실습은 수업 참관 및 연수 수강 위주로 활동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은 4주 차부터 진행했습니다. 첫 수업은 50분짜리 수업이 아니라 교과 담당 선생님의 수업 중간에 등장해서 지문에 나오는 소재를 잠깐 소개하고 들어가는 15분짜리 짤막한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포함하여 5번의 일반 수업과 1번의 연구수업을 하였습니다. 한 달 실습생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수업을 훨씬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외고 특성상 교생에게 수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한 번 한 번을 정말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업 준비와 실행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이후 중간고사가 끝나고 연구수업을 포함한 5차례의 수업을 더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하는 50분짜리 수업은 전공 수업에서 배우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교사분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선생님들의 수업 진행 방식, 사용하시는 자료, 학생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 등을 많이 배워 두시면 내 수업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교육과 교생 담당 교수
님이신 김낙훈 교수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업 구성을 포함하여 말투, 시선 처리, 판서, 교실 순회, 질문 등 모든 방면에서 풍부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도 제 수업을 참관하시며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실수나 부족한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이 제 수업의 방향을 잡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로 지적받은 부분은 '어떻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인가', '어떻게 학생과 상호작용할 것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수업 경연 대회나 일방적인 모의 수업에서는 절대로 실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 교육실습 현장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매 수업이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지도 선생님과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체감하며, 이를 통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고쳐 나가는 과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이번 학기제 실습에 매우 만족합니다. 한 달 실습과 달리 특별한 활동을 더 한 것은 아니지만, 길었던 기간 덕분에 한 학기 동안 학교의 다양한 분위기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학급 담당 선생님을 대신해 야간 자율 학습 신청서를 걷어보기도 하고, 중간고사 기간에는 자습으로 조용해진 복도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체육대회 전날 들뜬 학생들을 지켜보며 학교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고3 6월 모의고사 부감독으로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시험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서울외고 학생들과 교사들과 같은 시간과 공간을 오랜 기간 동안 공유한 경험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익숙함과 작은 경험들이 쌓여 훗날 교사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나 이거 본 적 있어.', '나 이거 해봤어.'하며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 금요일이 자유롭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만 출근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외대 수업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한 달 교생을 나가면 4월이나 5월은 어쩔 수 없이 통째로 학교 수업에 빠지게 되어 진도를 뒤따라가는 것이나 성적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학기제 실습생은 그런 걱정 없이 한 학기 일정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출근과 등교를 동시에 소화하는 것이 버겁지 않도록 목요일과 금요일에 3학점 수업을 각각 한 과목씩만 넣었고, 교생 실습을 마친 다음 날 학교 수업에 돌아올 때 오히려 편안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습 학교가 특목고라는 점입니다. 서울외고 학생들만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한 경험은 저에게 매우 뜻 깊었지만, 일반 중 ·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했다면 보다 현실적인 수업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만, 다음 실습 때도 교류 학교가 변경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면 특히 수업 경험이 더 중요한 학우분들께는 실습 학교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실습 학기제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나마 말씀드린 제 경험이 전부이지만, 한 달간의 실습을 통해 교사가 되겠다는 저의 꿈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같이 교사를 꿈꾸는 분들께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학기제 실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달이든 한 학기든, 학우분들의 뜻깊은 교육실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재학생 활동 4

임용특강 길라잡이

양태규 (20학번)

영어교육과에서 공부한 지난 3년은 힘들지만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영어교육이라는 분야가 걸어온 길을 마주하고 그 속에 담긴 가치와 교육관을 접하며 영어 교사로서의 꿈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 즉, 임용고시였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임용고시의 일정이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그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덧 3학년에 접어들어 대학생활의 절반을 넘긴 시점부터 임용고시에 대한 막연했던 걱정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임용고시 특강을 듣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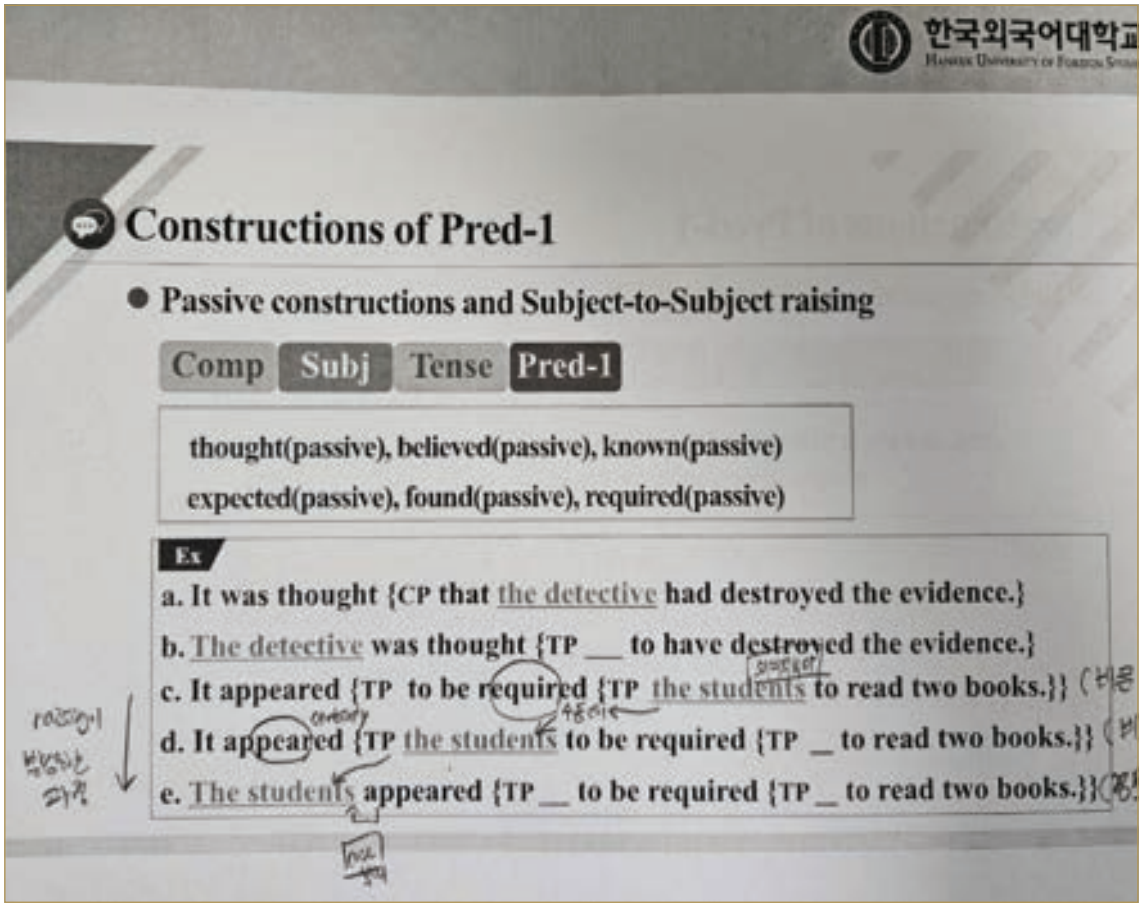
임용 특강

특강은 크게 임용시험 개요, 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의 네 갈래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에 정통하신 교수님들께서 임용시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며 분야별로 개념을 설명해주신 덕분에 임용시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풀이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되어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험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특강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약 일주일간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과 임용시험, 특히 영어학 분야의 많은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세부사항은 설명이 다소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직 영어학을 제대로 접해본 적 없는 학우님들께 이것이 큰 단점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추후 임용 특강에 관심이 있는 우리 과 학우님들께서는 영어대 교류 등을 통해 영어학 강의들을 수강하신 후 특강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임용시험 전반에 대해 가볍게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임하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마치며

특강 내용과 별개로 우리 영어교육과 뿐만이 아닌 타과, 대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특강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영어 교사라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든든했습니다. 제게는 이 사실이 영어 교사의 꿈을 향해 나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학우님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동료이자 경쟁자로서 발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생 활동 5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교인 5-1 영국

막연함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갖게 해준 교환학생으로서의 기회

공시은 (22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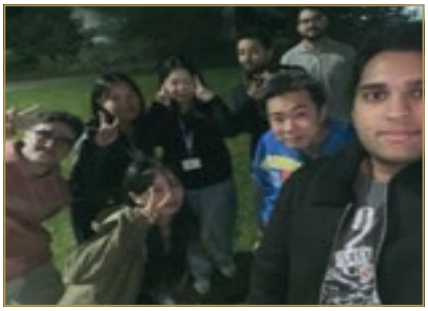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2024년 2학기에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공시은입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반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여태 현지인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며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교환학생 준비를 결심하기 전부터, 그리고 영국에서 생활하는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해 왔던 교환학생을 온 이유는 바뀌었고 또한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신분으로 외국의 대학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며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저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을 진지하게 훈련하고 싶다는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전공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면서 학술적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였고 일상적인 소통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현지 학생들의 수업을 수강하며 보고서와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전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이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던 때에는 영어를 평생 접해야 할 중등 영어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고 살아보는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저부터 영어에 더 친숙해지고 제가 진심으로 더 사랑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싶었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입니다.

대학 생활 1년을 남겨두고, 식상했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저를 돌아보며 저의 미래에 대해 한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했던 큰 목적 중



하나는 영어 때문이었지만, 언어는 기본이었고 언어 능력 자체보다도 틀려도 일단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동시에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할수록 이 수많은 사람 중 저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뚜렷하게 알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한국과 지금 생활하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서로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많았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며 이 친구들은 저를 포함한 한국의 많은 학생들과 달리 막연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진로와 곧 다가올 졸업 후의 얘기를 나누는데 "난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할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았고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학생 몇몇은 "회사 다니지 않을까? 돈 벌어야지, 평범한 회사원이 될 거야"라며 흔히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 있는 현실적인 말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 학생들이 어린아이처럼 아직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삶이나 커리어에 대한 집념, 그리고 처음부터 결심한 걸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적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당당하고 설레며, 기쁘게 말하는 친구들을 보고, 제가 좁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것을 안 좋아하며 검증된 것을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저의 성향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 없이 공부를 해볼 수 있고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어떠한 성과를 위한 노력, 명확한 목표가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내려놓고 좀 더 마음과 생각이 여유로운 사람, 막연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국 내에서 주말마다 다닌 거의 모든 여행지에서 야외 마켓(플리마켓, 빈티지 마켓, 파머스 마켓 등)을 꼭 한 군데씩 들릴 정도로 마켓이 많습니다. 특히 각 마켓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국은 유럽 중에서도 유난히 빈티지나 앤틱 마켓이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발달한 이유에는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영국인들의 가치관, 그리고 이른 산업혁명으로 일찌감치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티 마켓, 골동품 마켓, 가죽 마켓, 보석 마켓 등 마켓마다 개개인의 개성과 유니크함을 존중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특이한 마켓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멋과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영국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사람들은 할로윈,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같은 크고 작은 홀리데이를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과 축하로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교 근처 동네나 시내를 걸어 다니면 한 해 중 지루할 틈 없이, 꼭 이날만을 기다린 것처럼 집과 정원을 장식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해도 할로윈 한 달 전부터 코스튬을 고민하던 프랑스 친구, 크리스마스 두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마켓 여행 계획을 세우는 미국 친구,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리스트를 쓰는 현지 친구들을 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이벤트를 즐길 줄 아는, 마음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며 또 함께하며 여유를 배울 수 있었고 크고 작은 이벤트와 각자의 방식대로 소소한 행복을 하루하루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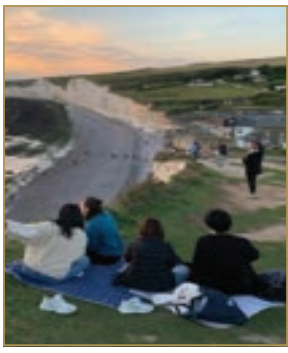
앞서 말한 막연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국 학생들, 그리고 오래된 멋과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영국 사람들은 아마도 개개인의 개성과 유니크함을 존중하는 영국 문화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또한 이러한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수업의 핵심이자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수업 중에 거리낌 없이 질문을 주고받고 학생들은 오답이더라도 당당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수업에서 생긴 의문점을 해결해 가면서 배우는 영국 학교의 문화가 한국에서의 교육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좋아 보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질문한 사람을 평가하는, 또는 평가받을까 봐 주저하는 수동적인 수업 태도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여행과 교환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이해하고 교육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이는 일상, 학생들의 태도와 문화를 몸소 경험해 보면서 그들의 색다른 가치관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조금씩 변화하는 제가 보입니다. 영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면서 편협했던 시야를 넓히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

는 틀에 질문을 던지며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아하는 과목만 정말 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프랑스 친구, 노팅힐 거리 한가운데서 기타를 배운 지 한 달 됐다면서 용기 내어 연주한 학생, 그리고 박수 쳐주며 팁을 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지금 제가 생활하는 이곳은 너무 다른 환경이라 영국의 문화와 환경을 접할 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배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대중교통, 소매치기, 마약 문제, 인종차별 등 이곳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좋은 것은 보고 배우고 나쁜 것에도 또한 배울 점은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 접근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제 주관을 확립할 수 있었고 가장 크게는, 세상은 제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의 절반이 지나고 3학년 초가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교환학생 준비를 처음 할 때에는 미래의 중등 영어 교사를 희망하며 준비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기도 하여 앞으로 있을 교생실습과 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 와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건물을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고 좋았지만, 이곳에서 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저와 다른 생각에 관심을 유독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제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일, 지금 하는 공부를 그만둘 계기를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심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용기를 낼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그만두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곳에서의 다채로운 경험들이 저에게 중요하겠지만 억지스러운 계기를 만들기보다 그냥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탐색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이곳에 오게 됐다는 것이 진실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신다면 거창한 목표가 없더라도, 그리고 과정 속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모든 것에는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교환학생들과 타지에서 온 외국 학생들 모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학기를 후회 없이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학우분들도 매 순간 소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생 활동 5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교인 5-2 스페인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

박샛별 (21학번)

1. 자기소개 및 교환 목적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샛별입니다. 지난 2024년 1학기 스페인 마드리드로 교환을 다녀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교환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문화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를 하며 영어 사용을 일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영어 사용할 기회를 만들고자 여러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 있는 회화 학원을 다니며 매주 2번씩 2시간 동안은 원어민들과 영어로만 소통했고, 때론 넷플릭스로 미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시청하며 한국인으로만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인풋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또 언어 교환 어플을 다운받아 네덜란드, 바베이도스, 태국,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한국에 여행 온 친구와 실제로 만나 카페에 가는 등 영어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영어를 사용하는데에는 확실한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불편하더라도 영어로만 소통하는 환경에 놓여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생존을 위한 언어만큼 언어능력을 단기간에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 스페인 교환 동기 및 스페인의 영어사용

영어 실력을 올리고 싶은데 스페인에 간 이유는 날씨와 경험의 다양성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전공생들이 선택하는 미국의 경우 학교 외에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시가 넓어 차량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일 거라 생각했고, 영국은 날씨가 좋지 않다고 들어 선택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스페인은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마드리드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화된 도시이기에 영어 소통에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란 기대로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마드리드는 남미와 유럽 각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아 현지인들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크게 불편했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마드리드는 분명 영어를 사용하기에 부족한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의 교환 생활은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체계 없는 인풋의 유입은 언어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학생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사용하는 표현이나 단어가 너무 다양했고, idiom의 경우 맥락을 통해 의미 유추는 가능했지만 낯선 표현을 한 두 번 듣는 것만으로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나다', '생각나다'라는 의미의 idiom인 'ring a bell'을 처음 들었을 때 문맥을 통해 뜻은 바로 이해했지만 익숙하지 않아 쓰고 싶은 상황에서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표현으로 대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 영어였기에 유창성과 발음은 나날이 향상하는 걸 느꼈지만 사용하는 표현의 다양성, 어휘 수준은 한국에 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단어와 숙어 암기만을 강조하는 한국식 영어교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EFL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걸 배웠고, 많은 양의 체계적인 인풋과 이를 응용해 보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적절한 균형이 영어 학습의 핵심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한 수준만큼 영어가 늘지는 않아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영어사용이 익숙해지고 영어로 소통하는 과정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점에서 교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먼저 스몰톡을 시도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제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느꼈고 성장했다는 만족감도 들었습니다.

교환을 꿈꾸는 학우 여러분들은 교환을 떠나기 전 꼭 많은 인풋에 스스로를 노출 시켜보는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넷플릭스로 미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컨텐츠를 영어 자막과 함께 시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환지에서 새로운 영어를 배운다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교환을 준비하신다면 더 만족스러운 교환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3. 문화교류

제 교환의 두 번째 목적은 문화 교류였습니다. 마드리드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국제적인 도시라 여러 문화적 경험을 하기에 알맞았습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 페루,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출신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유럽 전역에서 교환 온 학생들 덕에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 기숙사 대신 시내에 있는 쉐어 하우스에서 생활하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에콰도르에서 온 친구들과 공용공간을 공유하고 각 나라만의 문화와 개성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는 독일인 친구, 밤 9시에 오븐까지 써가며 매번 화려한 요리를 하는 프랑스 친구, 원팬 파스타를 만드는 절 보며 고개를 젓던 이탈리아 친구까지, 다양한 개개인을 관찰하고 이들과 교류하는 경험은 늘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저에게 간장과 부침가루를 얻어가 바삭한 애호박 부침개를 만들어 나누어준 이탈리아 친구, 그리고 주에 2, 3번 직접 크레페를 구워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부엌 한켠에 쌓아두던 프랑스인 친구에게서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었습니다.

또 다른 룸메이트에게는 '바차타'(살사와 비슷한 춤)를 배웠고, 네덜란드 친구와는 시험 전날 카공을 하고 때때로 딴짓도 하며 시험 기간 학생들의 모습은 어딜 가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많은 자극과 문화적 노출 속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기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4. 여행

교환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여행을 생각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으로 교환을 가는 분들이라면 여행이 교환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여행지를 몇 군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포르투칼

포르투갈의 포르투는 교환 생활 동안 간 유럽 여행지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건물이 많아 동화마을 같은 분위기를 주었고, 포르투 와인, 해물밥, 뽈뽀 같은 현지 음식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모루 공원에서 보는 노을과 야경도 정말 예쁘니 스페인과 묶어서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2) 모로코

유럽은 아니지만 스페인 여행 중 들리기 좋은 이색 여행지입니다. 특히 밤의 사막에서 양탄자에 누워 바라본 수많은 별과 별똥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라케시같은 대도시도 굉장히 이국적이고 독특해 비슷한 풍경의 유럽 여행에 질리신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3) 그리스

마지막은 신화의 나라 그리스입니다. 만화책에서만 보던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좋았어습니다. 폐허가 된 유적지에서도 그 웅장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물가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니 역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 방문해 보세요:)

5. 소감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에 둘러싸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한 학기 동안 생활하는게 늘 즐겁고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환경이 주는 여유 속에서 제 자신을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절한 스페인 사람들과 홀로 여행하는 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수많은 낯선 이들이 선의 덕분에 따뜻하고 감사한 기억들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교환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환 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넣은 저 역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에는 막막함을 느꼈으니까요. 그렇지만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괴테의 말처럼,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야지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후 가장 행복했던 6개월이었어요. 교환은 대학생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자 기회라 생각합니다. 잡으세요!

재학생 활동 6

ROTC, 모두의 꿈을 위하여

김성수 (21학번)

영어교육과 21학번인 저는, 2021년 대학에 입학하고 예쁜 벚꽃이 피는 무렵, 63기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ROTC란, 쉽게 말해 대학 생활 중, 휴학을 하고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18개월 동안 병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군인과는 달리,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며 3, 4학년 동안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학교생활을 하다가 졸업한 후, 소위부터 중위까지 24개월 동안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군 복무를 마치는 제도입니다.

제가 ROTC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장교가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지원하여 운이 좋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ROTC 생활을 하고, 방학마다 한 달 동안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고된 훈련을 하며 점점 사명감을 가진 장교로서 변화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염 속에서 20kg 군장을 메고 40km의 산길을 하루 종일 걷는 행군 훈련과 K2와 편제화기 K3 같은 총기들을 직접 격발하고 분해 및 조립까지 완벽히 숙달하는 훈련, 유격 훈련과 11m 모형탑 훈련과 같은 여러 힘든 훈련을 받으며,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뿌듯함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3, 4학년 동안 사관후보생 신분으로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 ROTC 교내 장학금이 수여되어 금전적인 부담도 덜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학우분들은 모두 미래의 멋진 예비 교사입니다. 약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전인격적, 교육적으로 성장시켜 미래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교사의 역할은, 군인 장교로서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사실, 군 복무라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람과 교훈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대학 생활 및 사회생활을 미뤄두고, 험난하고 외로운 곳에서 힘

든 훈련을 받으며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더 안전하고 뿌듯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안내해주는 것이 장교로서의 역할이고, 저 또한 병사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미래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3월 소위 임관을 앞둔 저의 가장 큰 다짐이자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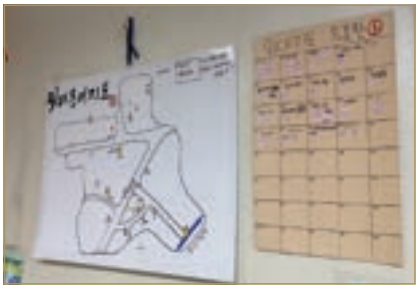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보람차고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ROTC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ROTC 선배분들이 여러분을 지원해 주고 그 경험의 진가를 인정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교로서의 그 값진 경험은 그 어떤 사회생활보다 특별하고 유용할 것입니다. 모든 ROTC를 비롯한 군 장병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충성!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학생이자, 63기 사관후보생, 김성수였습니다.

학생회 & 특별활동

사진 : 이길영 교수

외대동여지도 콘테스트



외대동여지도 콘테스트는 영어교육과 학우들이 직접 한국외대 주변 장소를 추천하고, SO-ONE 학생회가 직접 그려놓은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며 영어교육과만의 외대 지도를 만들었던 행사입니다. 여러 학우들의 글씨가 한 지도에 모이고 다양한 추천 장소가 기록되면서, 학우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 가기도 추천 장소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영어교육과의 외대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의미 깊은 행사였습니다.

짝선짝후 행사

개강을 맞이하여 영어교육과 새내기 학우들과 정든 내기 학우들이 함께 짝을 이루어 여러 가지 미션을 진행함으로써, 선후배 간의 어색함을 풀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행사입니다. 각 미션을 사진으로 인증하고 빙고판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추억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홈커밍데이 진행중인 임원들

소모임 소개

[영어교육과 축구 소모임 SCV]

[SCV는 현존하는 영어교육과 유일 스포츠 소모임입니다] 저희는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선후배 간의 교류와 화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축구 동아리 SOS와의 연계를 통해 축구, 풋살 등을 실제로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함께 경기를 시청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챔스의 밤'과 같은 MT 형식의 활동을 진행하여 소속 학우 간의 유대감을 더욱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SCV는 영어교육과 학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번,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SCV는 모든 학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구, 혹은 선후배 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에 관심이 있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육과 사진 소모임 '슈팅스타']

'슈팅스타'는 한국외대 영어교육과에서 사진을 좋아하는 학우들이 모여 청춘의 한 페이지를 함께 기록하는 소모임입니다.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득 담아 찰나의 순간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단체 출사와 사진 공모전이며, 때에 따른 특별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 소소하고 빛나는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며 학업으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슈팅스타의 사진들을 살펴보세요!

[영어교육과 교육학회]

저희 교육학회는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소모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지며, 임용시험 준비의 기초를 쌓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학회에서는 주로 학교 수업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임용시험 대비 핵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일반영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토플 리딩 학습을 진행하며, 2차 시험 준비로는 기출 면접 문제 시연과 심화 분석,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후의 수업 시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저희 교육학회에서 그 꿈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어교육과 복덕방 소모임]

우리 소모임 복덕방은 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한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모임입니다. 복학생들의 즐거운 복학 생활을 지원하고자 학기 중 정기모임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생분들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어교육과 학생이시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내기로서 학교생활 1

학생회를 하면서 배운 것들

서우진 (24학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등학교를 떠나 대학교에 입학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땐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인간관계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어느새 이 시골 쥐도 점점 적응하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과잠을 입고 나와 커피를 사 들고 교개원 계단을 오르는 것, 과방에 들러 동기들과 수다를 떠는 것, 운동장을 거닐며 산책하는 것,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로 들어온 듯합니다.

저는 영어교사라는 확고한 꿈을 갖고 영어교육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전공 수업, 교직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외에 교사라는 목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과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활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더 나은 과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모습에 고민 없이 과 학생회에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대학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국원으로 활동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사 기획과 실무적인 업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의사 결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카드 뉴스 제작 업무를 맡아 이를 국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국 완성해냈을 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라는 역할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교사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수업을 지도하며 학급을 운영하는 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5학번으로 오게 될 신입생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진로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경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저처럼 하고 싶은 일이 확고한 사람에게도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어디서

올 지 모르는 것이기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해보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이번 학기 1학년 과대표를 맡아 새로운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혹은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금의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 준 동기분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내기로서 학교생활 2

M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엔 대학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새내기 배움터에서 만난 인연들 덕분에 걱정이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설렘을 가지고 엠티에 참여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건우 (24학번)

어느새 대학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입학하기 전 티쳐샤워를 받고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새내기 여러분들을 위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회가 새로우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 대해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실 텐데, 저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에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지방에 살았기에, 서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는 것부터 설레지만 한편으론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새내기 여러분들도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조금 덜

어 놓아도 좋습니다. 아직 8개월밖에 대학 생활을 해 보지 못한 저 임에도 저는, 외대에는 새내기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걱정으로 둘러싸였던 저는, 새내기 배움터 덕분에, 그곳에서 만난 좋은 선배들 덕분에, 그리고 입학하고 만난 교수님들 덕분에, 그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로서의 걱정이 사라져 갈 때쯤엔, 엠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엠티는 정말 대학 생활의 로망이자 꽃이고, 많은 새내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엠티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고, 모두에게 추억이 될 엠티를 만들기 위해서 엠티를 주최하고 준비하는 tf를 맡게 되었습니다. 엠티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의 정기적인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즐길 게임을 준비하느라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하였습니다. 타임라인을 짜고, 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공지하는 과정은 꽤 힘들었지만, 선배들의 조언과 같이 기획하는 단원들과의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기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듯이, 엠티는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열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한 시간 정도 타임라인을 미루어야 했고, 급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여정이 주는 즐거움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조차 추억으로 남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저녁 식사, 피구 등의 활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통기타를 치는 동기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다 같이 떼창을 하는 모습은 정말 엠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는 새내기 배움터에서, 아니면 학교생활을 하던 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났던 좋은 선배님들처럼,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활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영어교육과의 품에 오셔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곧, 몇 달 뒤 만날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리 200% 활용법 1

Come to HUFS, Join the 'Black Knights (미식축구부)'!

도현우 (23학번)

안녕하세요, 23학번 도현우입니다. 어느덧 자랑스러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한 지도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간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이 경험들 중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외대를 대표하는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공부에만 매몰되지 말고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12년간 초 · 중 · 고를 다니면서 공부 외의 것에 몰두하면 그저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시선을 받으며 자라왔기에,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학 후 저는 새로움을 경험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과대표를 맡아 다양한 친구를 사귀었고, 과외를 여러 개 하면서 학생으로는 큰돈을 벌어 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며 높은 학점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음껏 다니지 못했던 헬스장에도 매일 갔고, 계절 학기도 들으며 '잘 살고 있다'고 느꼈지만, 마음 한 켠엔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일까?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걸까?" 제 대답은 'No'였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을 맞았습니다. 평범한 겨울방학을 보내던 중, 문득 미식축구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입학 후 운동장에서 멋진 장비를 입고 몸을 부딪치며 훈련하는 외대 미식축구부, 블랙나이츠를 보며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한치의 고민도 없이 입부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렇게 블랙나이츠에 입부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나이츠에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미식축구부 블랙나이츠는 2021년 챌린지볼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매년 서울 리그 상위권에 자리 잡는 팀으로 서울에서 손꼽히는 강팀입니다. 그런 팀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특히, 저의 포지션인 라인맨은 팀에서 가장 강한 힘을 요구하는 포지션이라 키가 190cm 가까이 되는 선수, 3대 중량이 600kg이 넘는 선수, 몸무게가 110kg 이상 나가는 선수 등 강한 피지컬을 갖춘 선배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학창 시절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저였지만, 미식축구를 하기엔 너무 마르고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일은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식축구 장비를 입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강해져서 대회에 출전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식축구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블랙나이츠 선배에게 도움을 청해 매일 새벽 함께 운동을 시작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오전에 개인 운동을 하고 오후에 팀 훈련을 하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미래에 도움되지 않는 미식축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나, 영어교육과가 무슨 미식축구냐는 만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뛰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았지만, 약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여하며 노력하자 서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들도 저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고, 힘도 많이 늘어 대부분의 선수를 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추계 미식축구 대회에서 외대를 대표하는 주전 선수가 되었고 고려대학교를 이기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1년간 피나는 노력과 수많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뤄냈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건다고 하거나 공부나 하라는 손가락질을 해도,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생기면 도전하는 것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제 삶의 목표가 제 가슴을 뛰게 하는가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무엇으로 바뀌더라도, 그것이 제 신념에 부합하고 심장을 뛰게 한다면, 미식축구 필드 위에서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영어교사가 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의사, 변호사, 교사'와 같은 직업을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 가슴 뛰는 꿈을 찾아 도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 미식축구선수 생활이 제가 더 좋은 영어 교사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와서 미식축구가 아니더라도 가슴 뛰는 일을 찾고, 그 목표를 성취해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아리 200% 활용법 2

동아리 '라온'을 소개합니다!

유은서 (23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번 유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라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아름다운 순 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듯 저희 뮤지컬 중앙 동아리 '라온'은 모두가 즐거움으로 하나되어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그 에너지가 무대를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닿도록 나누는 즐거움으로 뭉친 활기찬 동아리입니다!

제가 처음 '라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뮤지컬을 잘 몰라도 '라온'의 활동에 매력을 느껴 활동 중이신 분들도 많지만요! 그 때 당시 힘들었었던 시기에 소중한 사람의 권유로 뮤지컬을 보게 되었는데 1막이 끝나자마자 뮤지컬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란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삶이 뮤지컬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되어주었고 그 날 이후 뮤지컬은 저에겐 너무나도 뜻 깊고 의미 있는 취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잠들기 전 등등, 뮤지컬 넘버를 듣고 친구와 뮤지컬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보는 저를 보고, 멀게만 느껴졌던 뮤지컬이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뮤지컬이 저의 일부가 되었듯 저도 뮤지컬의 일부가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포스터 제작이나 영상 편집과 같은 미디어 제작에도 호기심이 있었기에 그 기회에 '라온'에 용기를 내어 처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며 한 무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의 멋지고 다채로운 대학 생활을 상상하며 말이죠!

저희 뮤지컬 중앙 동아리 '라온'에는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배우팀을 포함하여 다양한 예술팀 및 기획홍보팀 그리고 연출팀이 존재합니다. 동아리에 활용되는 모든 디자인과 홍보물을 맡고 있는 기획홍보팀을 시작으로, 페인트와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무대를 꾸며주는 무대팀, 콘솔과 마이크 및 음향 편집을 맡아주는 음향팀, 배우들의 헤어/메이크업과 의상 디자인을 해주는 의상팀, 조명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자인 및 오퍼 업무를 맡고 있는 조명팀, 마지막으로 극을 선택하고 대본을 번역하며 무대를 통솔해주는 연출팀까지 정말 다양한 팀들이 존재하는데

요, 모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쌓아 올려준 노력들 덕분에 매 기수 훌륭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 18기 기획홍보팀의 팀장을 맡고 있답니다!

저희 기획홍보팀은 모든 홍보물(티켓, 캐스팅 보드, 브로슈어, 포스터, SNS 게시물) 및 부스와 객석 컨디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하는 홍보물들은 모두 말 그대로 백지에서 만들어낸,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노력의 결실들이랍니다! 덕분에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쯤에서 잠시 뮤지컬의 매력에 대해 제 사심이 담긴 소개를 해보아도 괜찮을까요? ㅎㅎ

사실 영화는 뮤지컬보다 덜 한정적인 면이 있어서 훨씬 완성도가 높고 다듬어진 매체임에 반해서도 영화로 〈레미제라블〉을 봤을 때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뮤지컬로 접하니 배우들의 연기력과 호소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란, 영화와 같은 매체들 보다는 불완전하지만 그렇기에 차원이 다른 몰입감과 감동을 선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뮤지컬은 Annie, 디어에반핸슨, 드라큘라, 킹키부츠, 시카고입니다! 너무 많나요?. ㅎㅎ 그렇지만 볼 뮤지컬은 더 많고 매력은 더 더 많다는 거!!) 이제 소감을 말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네요.

저는 17기의 〈맘마미아!〉라는 뮤지컬로 '라온'의 기획홍보팀에 처음 합류하게 되어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는 18기 〈헤어스프레이〉 뮤지컬을 준비하는 '라온'의 기획홍보팀 팀장이 되어 있네요. 뮤지컬의 '뮤'자도 모르던 제가 뮤지컬의 매력에 한 번 빠진 후로 동아리에 참여하여 공연을 올리게 되고 팀장까지 맡고 있다니, 인생이란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는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도전이었고 팀장을 맡기까지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더 큰 사람으로 이끌었고 성장하게 만들어준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들로 자리잡았다는 것입니다. '한 단 아래에서 바라만 보던' 뮤지컬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나가는 뮤지컬이 되면 어떨까 상상을 자주 하곤 했었는데 '라온'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 제작물을 만들 때 마다 애정이 더욱 더 가기 시작했고, '라온' 부원들과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었을 때의 뿌듯함과 성취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긴 시간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뮤지컬을 선보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때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은 그저 시작일 때도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끝을 보이는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모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로부터 오는 설렘을 온 몸으로 비로소 느끼며 자신의 한정된 구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길 바랄게요! 혹시 아나요? 저처럼 열정적으로 빠지게 될 무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뮤지컬 '라온'의 정기 공연을 찾아와주시고 호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온' 많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세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오시는 발걸음부터 나가시는 발걸음까지 즐거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라온의 즐거움을 온누리에! 라온 기획홍보팀장 유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생 목소리 1

불암산 정상에 서다

김 결 (23학번)

2024년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즈음, 23, 24학번 후배, 동기들과 함께 불암산을 다녀왔다. 출발하기 전날 밤 날씨가 덥진 않을까, 날이 흐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무색하게 날씨가 매우 좋았다. 이길영 교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등산이라 그런지 흥분이 되고 내려오고 난 후 먹을 식사가 더욱 기대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까진 무리가 없었다.

산 중턱을 넘어 7부능선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숨이 차고 땀이 계속해서 흐르게 되었다. 챙겨온 간식과 올라가며 보이는 경치를 요깃거리 삼아, 열심히 오른 끝에 정상에 올랐다. 꼭대기에서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며, 다리에 느껴지는 피로 만큼을 다시 내려가야 한다 생각하니 살짝 벅찬 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먹는 아이스크림의 맛은 정말 훌륭했다. 그렇게 다시 점심을 먹으러 내려간다고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내려와 선정된 메뉴는 감자탕이었다. 원래도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기아상태에서 먹은 감자탕은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고, 3그릇을 해치웠던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이후 걸어 다니며 본 꽃은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요소였다. 아마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고, 이 행사에 참여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추천해 주고 싶다.

박예준 (23학번)

봄 무렵 교수님의 지도 하에 불암산으로 등산을 갔다. 등산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등산을 한 지 꽤 되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 명이 함께 등산을 오르면 재밌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암산을 오르면서 등산 길이 참 가파르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다. 그래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중간에 계속 쉬면서 여러 대화도 나누며 오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역시 들었다.

산의 정상에 다다르고 주변 경치를 보며 보람을 느꼈다. 시험이 끝난 후의 후련함과 더해져 배가 되었던 것 같다. 산 정상의 광경과 함께 사진도 찍고 천천히 하산을 했다. 하산 후에는 교수님께서 감자탕을 사주셔서 함께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주변의 꽃 구경도 갔었다. 이번 등산의 경험은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서우진 (24학번)

이길영 교수님, 그리고 같은 과 학우분들과 불암산으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고, 정상에 다다랐을 땐 성취하는 것의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무척이나 소중한 경험으로 남은 이 기회를 주신 이길영 교수님, 함께 해준 학우분들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원 (24학번)

처음 등산을 계획하였을 때에는 걱정이 앞섰다. 아무래도 등산을 해 본 적이 워낙 오래 전이었던 탓에 체력에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혹여나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산을 올랐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또 몇 번이나 지쳐서 쉬어 가야 했다. 오르는 동안에는 정상에 대한 기대감보다 '힘들다' 라는 감정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게 정상에 오르고나니 성취감이 밀려들어왔다. 대학에 온 후로,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었다. 정상의 공기와 성취감을 만끽하는 동안, 내 안에서 힘들다는 감정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물론 불암산 등산은 힘든 경험이었으나 정상에서의 성취감을 통해 내 자신이 한 발짝이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는, 살면서 몇 없을 귀중한 경험이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꼭 등산이 아니더라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미뤄 놓은 일이나, 혹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꼭 한 번 시도해 봤으면 한다. 성공하던 실패하던 간에, 그 전의 당신보다 성장할 것이고, 이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재학생 목소리 2

저의 취미를 소개합니다 집착과 프리다이빙의 연관성

윤태현 (23학번)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강렬한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착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저의 취미 중 하나인 프리다이빙을 통해 집착이 어떻게 고통과 행복을 동시에 줄 수 있는지, 집착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리다이빙은 호흡 장비 없이 단 한 번의 숨으로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호흡 조절과 신체의 산소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며, 정신적 평온함과 압력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한 스포츠죠. 호흡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과 평정심을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이 스포츠에는 지나친 집착이 불러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재앙과 같습니다. 기록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과하면, 신체에 무리를 주게 되어 부상, 혹은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같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더 나아가, 목표에 대한 높은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프리다이빙 본연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이빙을 통해 깨달은 것은, 큰 관점에서의 집착은 일시적인 작은 목표에 대한 집착을 완화해 주고, 오히려 장기적인 만족과 행복을 키워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다이빙을 통해 얻으려는 큰 목표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평온함과 내면의 성장이 된다면, 기록에 대한 조바심과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큰 관점에서의 목표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발전과 깊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기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삶이 단조롭거나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면, 집착을 다룰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영어교육과 대학원 프로그램 및 교육대학원 소식

2024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소식

1.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특강

주제 : AI 코딩 활용 영어수업 과제 만들기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실 수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예비 교사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공특강이 열렸습니다. 2024년 1학기 전공특강에서는 AI 코딩을 활용하여 영어 수업 과제를제작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일시 : 2024년 6월 20일 5:00 ~ 6:00 pm

장소 : 대학원 508호 (대면)

강사 : 이준규 교수님(한국외대 교육대학원)

2. 교육대학원 현직교사 특강

주제 : 영어교사의 미래소양 역량으로서 미래 환경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수업 전략 – 개정교육과정을 중점으로 한 영어수업 시연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에서는 매학기 현장교사 특강이 열립니다. 교육 현장과 학습자 요구를 이해하고, 현직 교사들의 교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예비 영어 교사들의 현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 1학기 특강에서는 기술 환경의 변화, 미래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영어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20:00 ~ 21:30

장소 : 대학원 304호 (대면)

강사 : 오나연 선생님 / 주엽고등학교

3. 교육대학원 2024년 ' AIDT 활용 영어/수학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 시행

과정명 : AIDT 활용 영어/수학 수업을 위한 (예비) 교사 연수

교육대학원에서는 검정에 통과한 여러 종의 영어/수학 AI 티지털교과서를 체계적으로 선정(selection)하는 방법과 선정한 AIDT를 효과적으로 사용(adaptation)하는 방법을 교과서 저자, 출판사 편집자, 교과서 검정위원을 초빙하여 전문적으로 연수하였습니다.

연수 대상 : 전국의 현직 중등 교사 및 2025년 AIDT 활용 예정인 예비 교사 중 희망자

모집 인원 : 10명(영어), 5명(수학)

총 연수 시간 : 15시간(직무연수)

일정 : 2024년 10월 5일(토), 11월 30일(토), 12월 28일 (토) 13:00–18:00시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건물

사범대학소개 (타과 / 소모임, 패 소개)

2024 교육대학원 [어린이영어교육] 전공 소식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지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 여명의 졸업생 배출

한국외대 어린이영어전공의 특장점 :

- 유아, 초등영어 대한 종합적 / 단계적 접근
- 사교육과 공교육의 균형적 접근
- 국내 최강의 Literacy Curriculum 제공: Literacy 세부 영역의 교과목 개설,
- 매 년 Literacy 주제 특강 및 워크샵 운영 등

2024년 주요 행사

1. 어린이영어 전공 하계 특강 (2024. 8. 23)
   주제 : 영어 library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영어 도서관은 입문기의 아동들에게 literacy 발달 측면에서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오유나 (전) 청파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장을 초빙하여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리터러시와 English book club 프로그램과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 어린이영어 전공 워크샵 (2024. 8. 24)
   주제 : 어린이영어 온라인 교재 개발 과정
   최근 어린이영어 학습용 온라인 교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교재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유초등 영어교재개발자를 초대하여 교재(서지형 및 온라인 교재) 개발의 전 과정을소개하고, 콘텐츠 개발의 핵심 부분인 커리큘럼 개발을 중점적으로 탐색한 후 그룹별로 커리큘럼 개발 과정을 실습하였다.

2024 TESOL 대학원 소식

TESOL대학원은 TESOL 관련 국내 유일의 독립 대학원으로, 현장 적용성과 실용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영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09년에 설립된 특수대학원이다.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학과와 ELT Materials & Technology (ELT MT) 학과, 두 개 학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LT 학과는 영어교육 이론 및 지식 습득과 교수 · 학습 상황에 맞춰 교육의 전과정(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 교수 방법 및 교재 선택 – 학습 평가 및 수업 성찰)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적용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ELT MT 학과는 멀티미디어 활용영어교육 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AI를 교육의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역량TESOL대학원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TESOL 전문지식뿐 아니라 영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공 · 사교육 기관 교육자 및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자들 다수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 모든 수업은 야간에 개설하여 영어로 진행하며, 매 학기 다수의 온라인 과목을 개설하여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수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소개

한국어교육과 | 학과소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세계 속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는 중,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아울러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인력을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입니다. 〈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두 가지의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과 2, 3급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사 외에도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출판사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해 정은아 아나운서, 신윤주 아나운서를 비롯한 다수의 선배가 방송인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http://hufskle.hufs.ac.kr/ 전화번호: (02) 2173-2345

| 주요 교과과정 및 취득 가능한 자격증 |

- **국어교육 전공 :** 국문학개론, 고전시가교육론, 국어문법론, 국어논리 및 논술교육 등 중등학교 국어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 및 교육 방법을 학습합니다.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학 영역 8학점 이상, 전공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 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학습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등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시에 요구되는 관련 지식과 교수법을 탐구합니다. 2급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 각 영역별로 학점을 이수하여,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특성화 프로그램 및 학과 활동 |

- **학술 답사 :**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과 활동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답사를 진행, 그 지역의 문학, 어학, 역사 등에 대해 현장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글날 행사 :** 한글의 소중함과 중요성, 그리고 한국어교육과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기념특강, 한글 골든벨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 **임용고시 특강 :** 국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강사를 초빙하여 매 학기 임용고시와 관련된 특강을 제공합니다. 강의를 통해 많은 조언과 다양한 공부 팁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용고시 스터디도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학회 |

- **학회 소개 :** 참교육의 창을 여는 교육학회입니다. 교육자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교육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 등을 토대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하는 학회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흐름, 현 시대의 교육과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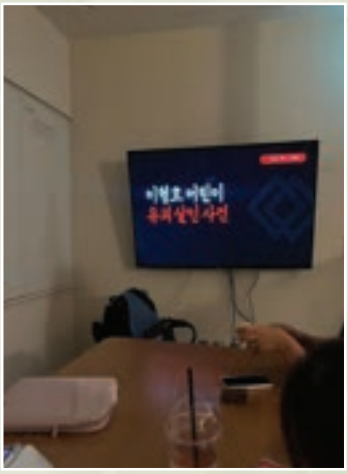
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풍, 엠티, 파티 등의 행사로 즐겁고, 선배님들의 교생 후기를 듣는 시간 또한 있어 알차며, 홈커밍이나 졸업식 준비 등을 통해 선후배간의 돈독한 사랑과 우정을 만들고 오랫동안 이어 나갈 수 있는 가족과 같은 학회입니다.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풍, 엠티, 파티 등의 행사로 즐겁고, 선배님들의 교생 후기를 듣는 시간 또한 있어 알차며, 홈커밍이나 졸업식 준비 등을 통해 선후배간의 돈독한 사랑과 우정을 만들고 오랫동안 이어 나갈 수 있는 가족과 같은 학회입니다.

| 문학회 |

■ **학회 소개 :** 문학회는 '세상을 읽어 내일에 인사하다'를 기조로 삼아 매주 다채로운 갈래의 문학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자유 발제를 진행합니다. 또한 매주 실시하는 100자 글쓰기 활동의 결과물을 책 '백록담'으로 엮어내는 등 의미 있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학회입니다.

| 사회과학회 |

■ **학회 소개 :** 격이 다른 사회과학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학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 매주 색다른 내용으로 세미나와 토론(발제)을 진행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소개

프랑스어교육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교육과는 장차 유능한 국내 프랑스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969년 설립되어, 1973년 첫 졸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약 1,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중등 교육기관, 연구소나 평가원의 연구원, 대학교수, 외교계, 방송 · 언론 분야, 통번역 분야, 영화계, 공공 및 민영 기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어교육과에서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이중전공으로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의 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며, 능력과 희망 진로에 따라 교육, 문화, 예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능력의 습득만이 아니라 5대양 5대주의 프랑스 언어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는 일도 중요시 합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 관련 문학 ·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한편, 타 학문과의 학제 간 문화융합연구 등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fe.hufs.ac.kr/ 전화번호: (02) 2173-2343

| 주요 교과과정 |

- 프랑스어교육과는 프랑스어 기본과정, 교과교육학, 어학, 문학 및 문화 네 축으로 이루어진 탄탄한 교과과정을 통해 우수한 교원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기본과정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1-2학년에 집중 편성된 초급 및 중급 프랑스어 강독, 초 · 중급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 문법연습 등의 교과목을 통해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과 교육학	미래 프랑스어 교수자로서 지녀야할 전문 지식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프랑스어 교과교육론, 프랑스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프랑스어 교육콘텐츠, 실용 프랑스어 지도법, 프랑스어 논설문 읽기 및 지도법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 학	프랑스어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를 통해 프랑스어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언어학의 이해, 프랑스어 논리 및 논술, 프랑스어 번역연습, 시사 프랑스어 독해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문학 및 문화	프랑스 문학과 사회 ·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프랑스 문학개론, 현대 프랑스 문학, 프랑스 사회와 문화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우리학과 100% 즐기기 |

- **기초학회 :** 우수한 프랑스어 실력을 갖춘 선배들이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1학년 후배들을 돕기 위해 기초적인 프랑스어 수업을 진행하는 학회입니다.
- **Café débat :** 프랑스어 회화에 관심 있는 학우들과 Marianne Milhaud 교수님이 주 1회, 1시간 모임을 가져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적인 시사와 문화, 그리고 여러 사회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프랑스어 회화 실력을 기르는 학회입니다.
- **기초회화학회 :** 프랑스어 회화에 관심 있는 학우들과 Marianne Milhaud 교수님이 주 1회, 1시간 모임을 가져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적인 시사와 문화, 그리고 여러 사회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프랑스어 회화 실력과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기르는 학회입니다.

- **기초회화학회 :** 프랑스어에 열정이 있는 학우들과 Nicolas Tuboeuf 교수님이 주 1회, 1시간 모여 프랑스어 기초 회화와 프랑스어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프랑스어 기초회화 실력을 함양하는 학회입니다.
- **사진학회 :**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학우들이 모여 가고 싶은 출사지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출사 활동을 진행하는 학회입니다.

| 우리 학과 행사들 |

- **선배와의 job담 콘서트 :**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졸업생 선배님들을 멘토로 초대하여, 재학생 학우들의 진로, 꿈, 미래, 취업과 관련된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멘토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학번들로 모인 조별로 한 분의 멘토와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오픈 멘토링 시간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 **임용특강 :** 중등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교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시험 준비 방법, 임용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 **프교인의 밤 :** 프랑스어교육과 학우분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시청하는 행사로, 다양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학우들과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기초학회

2) 선배와의 JOB담 콘서트

3) 임용 특강

4) 졸업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소개

독일어교육과

교통 ·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국어 한두 개를 구사하는 일은 매우 유용하고 절실한 현실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영어 외에 가장 강력한 세계어의 하나인 독일어가 자리합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과는 수준 높은 독일어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독일어는 물론, 독일어권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훌륭한 독일어 구사 능력과 독일어권 지역 사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게 됨은 물론,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어 가듯이 외국어교육학도 체계적인 이론과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언어습득이론, 외국어교육이론, 교수 · 학습 방법론, 교재 개발 및 연구론, 교과교육과정론 등에 걸친 최고의 교과과정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자부합니다.

http://germanedu.hufs.ac.kr/ 전화번호: 02) 2173-2344

| 주요 교과과정 |

독일어 습득 기본과정	초 · 중 · 고급 과정의 독일어 회화 · 작문 · 강독 및 독문법, 독일어통번역연습 등 총 720시간의 독일어 숙달 과정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을 유럽 공통참조기준인 B2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외학기를 통하여 C1 수준까지도 성취하고 있습니다. 교수 1인당 배정 학생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체계적인 맞춤지도를 실현합니다.
교과내용학	독일어 기본 습득과정을 통해 향상된 독일어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어학, 독일문학 등 독일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을 배웁니다. 이 외에도 독일어권 문화 등의 독일의 지역 사정과 정치, 경제 등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어권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교과교육학	독일어 교과교육론, 독일어 교수법,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독일어 교육과정 및 평가, 발음 연구 및 지도, 듣기 연구 및 지도법 등 독일어 학습 및 독일어 교육 등의 외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강좌가 운영됩니다. 교사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유능하고 창의적인 독일어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세부 교과과정 |

1학년	독문법 1-2 / 초급독일어작문 1-2 / 초급독일어강독 1-2 / 초급독일어회화 1-2
2학년	중급독일어회화 1-2 / 중급독일어강독 1-2 / 중급독일어작문 1-2 / 독일어듣기연구및지도법 / ICT활용독일어교육 / 독일어발음연구및지도법 1-2
3학년	고급독일어회화 1-2 / 독일어교과교육론 / 독일문학사 / 독일어교수법 / 독어학개론 / 독일어교재연구및지도법 / 독일문학개론 / 독일어교육과정및평가 / 독일어권문화
4학년	고급독일어강독 1-2 / 고급독일어작문 1-2 / 독일어통번역연습 1 / 독일어논리및논술 / 외국어교육을위한독어학 / 독일어교육세미나 / 독일어교육현장연구 / 독일어어휘연구및지도법

| 학과활동 |

홈 커밍 데이	매년 독일어 교육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 입니다. 1부에 는 학술제, 진로 선택 등의 주제에 대한 동문 선배의 강연 및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2부에는 다 함께 식사하며 돈독한 유대관계를 다지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Weihnachtsfest	매년 2학기 초에 독일어 말하기대회(Redewettbewerb)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이 창의적으로 작성한 글을 심사하여 9명을 본선에 초대합니다. 본선에서는 원고를보지 않고 7분 정도 자기가 작성한 글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진학 & 교육	일반대학원 및 통번역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학, 대학교수, 중등 독일어교사, 기업 내 사내교육 담당자 등
기업	국내 대기업 및 일반기업체, 한국 진출 독일기업, 항공사
정부 & 공공기관	외교부 등의 정부부처, KOTRA · 한국관광공사 등의 공기업, 콘라드아데나워재단 등의 독일 국제교류기관 등
언론 & 기타	방송 · 신문 기자, PD, 아나운서, 통번역전문가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소개

중국어교육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학부 중국어교육전공은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재학생들이 훌륭한 중등 2급 정교사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외대가 가진 언어 및 인문학적 강점 위에 해외 자매대학 유학연수, 중국어교육 관련 워크숍, 국내외 중국어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학술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cle.hufs.ac.kr/ 전화번호: 02-2173-3236

| 주요 교과과정 |

1학년	중국어권문화 / 중국어듣기와 발음교육(1) / 중국어듣기와 발음교육(2) / 초급중국어회화(1) / 초급중국어회화(2) / 중국어강독(1) / 중국어강독(2) / 중국역사
2학년	중국문학개론 / 한문강독 / 중국어문법 / 중급중국어회화(1) / 중급중국어회화(2) / 중국고전문학 / 중국어문자교육 / 중국어작문 / 중국어학개론
3학년	중국현대문학 / 중국어교과교육론 / 중국어어휘교육 / 멀티미디어중국어교육 / 한중언어대조 / 중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 중국어듣기및말하기지도법 / 중국어교육사상사 / 중국어논리및논술 / 중국어교육현장연구
4학년	AI · 디지털콘텐츠중국어교육 / 중국어교과교실수업의실제 / 중국어문학작품강독 / 중국어통 · 번역교육연습 / 중국어원어수업지도법 / 중국어교육세미나

| 교육목표 |

- 디지털 역량, 현장 역량을 갖춘 중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필요역량 및 권장 소양 |

- 중국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겸비한 중국어 의사소통역량
- 시대적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 활용 역량
- 급변하는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현장 역량

| 특성화 프로그램 |

- **7+1 교환학생제도 :** 북경대, 복단대, 남경대, 대만사대, 안휘사대 등 중국의 저명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통해 4년 8학기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파견
- **현직교사 특강 :** 현직 중국어 교사를 초청하여 중?고등학교에서의 중국어 교육 실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사제동식(師弟同識) :**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학기마다 교수–학생 상담 프로그램 진행
- **전공 및 임용 스터디 :**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중국어와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과목 학습 및 임용 스터디 진행
- **학술답사 :** 중국과의 역사적 교류가 있는 곳을 답사하여 중국과의 교류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졸업 후 진로 |

- **교사 임용 :** 국 · 공립 및 사립 중 ·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사, 이중언어교사 등
- **취업 :** 국 · 기업 – 중국 관련 마케팅, 관광, 교육 관련 분야
- **진학 및 연구 :** 연구소, 국내/해외 대학 석 · 박사 진학, 국립외교원 등

| 취득 가능한 자격증 |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FLEX 중국어, HSK / CPT(중국어 능력 시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동아리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축구 동아리 **'SOS(Soccer of Sabeom)'**. SOS는 '외대 월드컵', '삼건물대회'와 같은 교내 대회에 사범대학을 대표하여 출전하며, 대회에서의 승리를 위해 주 1회 경기장을 대관 및 타과, 외부 축구부와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구를 매개로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전지훈련을 통해 축구 실력 향상과 동시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B/YB 행사를 통해 선후배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선배님들의 값진 경험들을 후배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

- **토요리그 :** 매주 토요일 한국외대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토요리그(외대리그)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 **교내대회 참가 :** 1학기에는 '외대 월드컵', 2학기에는 '삼건물 대회'에 사범대를 대표하여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 **OB/YB 행사 :** 졸업하신 SOS 선배님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축구를 하고 뒷풀이 자리를 가지면서 선배님들의 값진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노래패 '**사노라면**'은 한국외대 사범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함께 소통하고 음악을 즐기는 밴드 동아리 형태의 노래패입니다. 사노라면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낭만 가득한 학교생활을 즐겨보세요!

| 주요활동 |

■ 매학기 정기공연

매 학기 열리는 정기 공연에서는 한 학기동안 연습한 곡들을 무대에서 공연합니다. 공연을 위해 모든 인원이 회의를 통해 정해진 곡별로 팀을 만들어 매주 패방에서 합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오랜시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지고, 합주의 순간에는 서로의 실력과 감정이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한 켠의 추억이 탄생합니다.

■ 1:1 악기 클래스

사노라면은 음악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1:1 악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처음접하는 사람들도 각 악기 파트별로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이 직접 지도해 주기 때문에 혼자서 악기 연주를익히는 어려움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합주에 익숙해질 때까지 1:1로 연습을 돕는 선배들의 지원은 사노라면이 자랑하는 특별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 친목행사

단순히 음악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정을 쌓아가는 공간이기도합니다. 사노라면은 정기적인 합주와 공연 외에도 멤버들 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MT나 회식 등의 친목 행사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동아리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풍물패 '**한솥밥**'입니다.

'**한솥밥**'은 1992년에 창설된 풍물패로 전라북도의 고창농악을 전수받아 꽹과리, 장구, 북, 소고, 징등의 악기를 다루며, 올해는 32기와 33기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풍물의 즐거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 인생의 값진 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우들이 모여 함께 연습하며 매년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대 위의 연출이 아닌 동아리원들의 풍물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빛나는 순간을 담아 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풍물을 관람하는 모든 관객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잔잔한 감동과 울림, 그리고 풍물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 주요활동 |

■ 정기연습

시험 전 2주를 제외한 학기 중 매주 월,목요일에 정기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매주 두 번씩 주체 학번인 32기가 신입 패원 33기에게 오금 및 판굿 가락을 알려주는 것 위주로 진행되며, 2학기에는 매주 월, 화,목요일에 연습을 진행하며 정기공연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지신밟기

매년 5월, 본교와 주변 상권에서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지신을 지압하고자 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름 / 겨울 전수 : 방학 중 동아리의 패원들이 일주일 간 고창농악전수관에 방문하여 고창농악을 전공으로 하고 계시는 사부님들께 악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풍물의 즐거움도 얻으며 스스로의 기량을 늘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 전수 발표회

1년에 두 번 여름 전수와 겨울 전수 이후 본교 운동장 혹은 종로 남인사 마당에서 외대 풍물패 연합 총 네 개의 풍물패가 전수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 교내, 교외 축제 공연

가을에 있는 교내 축제, 타 학교와 연합하여 진행하는 축제, 사범대학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등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외 행사 초청이 있을 경우에도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공연**

매년 한 해가 끝날 무렵, 전수를 통해 배운 것과 일 년 동안 패원들이 땀 흘려 연습한 것을 토대로 쌓아온 기량을 뽐내고, 많은 지인들을 초대하여 풍물로 하나됨을 도모하는 정기공연을 진행합니다.

■ **해넘이굿**

12월 31일, 종각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풍요로운 새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판굿과 악기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발전기금 안내

"내리사랑에 참여를 기대합니다"

1968년 12월 설립 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영어교육과는 한국외국어대의 외국어교육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합목적인 학과로서 21세기 한국 영어교육의 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내에서 입시 성적이 상위권이며 국내 관련 학과 중 임용고사 합격률도 상위인 학과로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교수 및 학습운용에 있어서도 영어 교육과의 전형으로서 부동의 위상과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영어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하여 일찍이 교육과정을 대폭 개혁하였으며 다양한 특성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육과 후배 학생들의 활동과 다양한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기부해주시면 이 금액은 쌓이면서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은 다음 면의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우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기금서의 기부목적란에 영어교육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금액은 영어교육과 발전을 위해서만 소중히 사용됩니다.

♥ 문의 : 영어교육과 학과장 이길영(klee@hufs.ac.kr)
영어교육과 사무실 (02) 2173-2342, http://hufsee.hufs.ac.kr

고혁범 (18학번)

길고 긴 편집이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했던 일이 글을 읽는 데 감동과 즐거움이 함께하였습니다. 기념비적인 일에 제가 기여했던 사실에 그저 매우 기쁩니다. 곧 졸업하고서도 영어교육과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영어교육과, 원고를 주신 동문 및 재학생 여러분과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약정서	금 원(₩)
기부목적	영어교육과 발전기금

□ 인적사항

성명(상호)명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 동문	□ 학부모	□ 교직원	□ 재학생	□ 기타
동문 / 재학생	대학(원)		학과(전공)	입학년도	년도
학부모(자녀)	자녀성명( )	대학(원)	학과	입학년도	년도
기 타					

□ 연 락 처

자택주소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화번호	
직장	(부서명)			직 위	
Mobile		E-mail		우편발송	□ 자택 □ 직장

□ 납부방법

구 분	□ 지로	□ 무통장입금	□ 급여공제	□ 기타( )
무통장입금 계좌안내	예금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우리은행 :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Tel.(02) 2173-2790 Fax.(02) 2173-2785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E-mail : hufs50@hufs.ac.kr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인 (날인 또는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보내는 사람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5.01.01.~2026.12.31.
동대문우체국
제356호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 2 4 5 0

절

취

선

세계가 원하는 경쟁력,
HUFS에서 JUMP!

전세계 다양한 언어 문화 콘텐츠와 첨단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AACSB ACCREDITED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의 중심, HUFS가 있다
세계와 우리, HUFS가 잇다

신설학부

Language & AI융합학부 /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 AI데이터융합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반도체전자공학부 / 기후변화융합학부

70년을 넘어 100년까지 학생이 성공하는
HUFS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